

한국지리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일 시 : 2024년 5월 25일(토) 09:00~18:00
- 장 소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합동강의실(1동 148호),
교수세미나실(2동 109호), 시청각실(2동 331호)
- 주 최 : 한국지리학회
- 주 관 :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한국지리학회
- 후 원 :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한국지리학회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

한국지리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일정

2024년 5월 25일(토)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 09:00~11:00 학술 답사 - 청주 원도심
 청주의 원도심을 만나다: 성안동-중앙동 일대

- 13:00~13:10 개회식 - 합동강의실(1동 148호)

- 13:10~14:30 특별 분과 - 합동강의실(1동 148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에서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역할

- 14:40~16:20 일반 분과 1: 자연지리 - 시청각실(2동 331호)

- 14:40~17:10 일반 분과 2: 인문지리 - 합동강의실(1동 148호)

- 16:30~17:10 일반 분과 3: 지리교육 - 교수세미나실(2동 109호)

- 17:20~18:00 총회 - 합동강의실(1동 148호)

학술 답사 - 청주의 원도심을 만나다: 성안동-중앙동 일대

09:00~11:00 청주 원도심 일대

인솔: 윤현위(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 일정 및 답사지

- 09:00 청주 중앙공원 망선루 앞 집합
- 09:00~10:00 청주 성안길 우물터 → 구 롯데 영플라자 → 청주시청 별관
- 10:00~10:50 문화동 적산가옥-북문로 일대 → 학천탕
- 11:00 옛 청주역 전시관(답사 종료)

특별 분과 -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에서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역할

13:10~14:30 합동강의실(1동 148호)

좌장: 이광률(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13:10~13:30]

IB에서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역할

권상철(제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3:30~13:50]

IB교육과정의 국내 도입에 대한 비판적 측면에서의 지리적 담론

정승모(제주대학교 글로벌교육전공)

[13:50~14:10]

IB 교육에서 국제적 소양과 지리학 및 지리교육의 중요성

강효선(브랜섬홀아시아 국제학교)

[14:10~14:30]

질의·응답

일반 분과 1 - 자연지리

14:40~16:20 시청각실(2동 331호)

좌장: 변종민(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4:40~15:00]

남극 빙하지형 지형분석 연구의 함의 1. 해저 빙하지형 분석을 이용한 고빙하 유역 복원

이현희(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15:00~15:20]

지형·지질·퇴적물 분석으로 본 내륙습지의 역할 및 가치

-횡성 계천 포동습지를 대상으로-

정근비(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윤혜연(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팀)

장동호(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김다은(국립생태원 외래생물팀)

[15:20~15:40]

Improved seasonal definition and projected future seasons in South Korea

임아영, 이은걸, 오지은, 송미선(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최영은(건국대학교 지리학과), 최다솜(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15:40~16:00]

영남 지역에서 가장 더운 곳은 대구인가?

이광률(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16:00~16:20]

한국의 향토민요(논매기소리) DB 구축과 과제

장동호(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임은진(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일반 분과 2 - 인문지리

14:40~17:10 합동강의실(1동 148호)

좌장: 윤현위(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14:40~15:00]

**춘천시의 기업도시 정책에서 기업혁신파크 정책까지 회고와 전망
: 장소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정성훈(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15:00~15:20]

혁신시스템과 다층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에듀테크 산업의 혁신 역학

김수정(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5:20~15:40]

머신러닝을 활용한 수도권 마약 전파 분석

임창민(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15:40~16:00]

우리나라 도시축소의 공간적 특징 분석: 인구집중구역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채현(한국도시연구소), 조대현(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16:10~16:30]

플랫폼 도시의 상업공간과 상업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고찰

홍동표, 류연택(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16:30~16:50]

한반도 일제강점기 도쿄(東京)의 국내외 천도론(遷都論) 개관

최원희(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6:50~17:10]

박정희 정권 말기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고찰: '입지선정'과 '도시기본구조'를 중심으로

최원희(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일반 분과 3 - 지리교육

16:30~17:10 교수세미나실(2동 109호)

좌장: 임은진(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6:30~16:50]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의 유럽지리 서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민환, 류나영(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6:50~17:10]

2022 개정 초등사회과 지리영역 교육과정의 언어 네트워크 구조 분석

이동민(진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목 차

[특별 분과 –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에서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역할]

IB에서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역할	11
IB교육과정의 국내 도입에 대한 비판적 측면에서의 지리적 담론	16
IB 교육에서 국제적 소양과 지리학 및 지리교육의 중요성	19

[일반 분과 1 – 자연지리]

남극 빙하지형 지형분석 연구의 함의 1. 해저 빙하지형 분석을 이용한 고빙하 유역 복원	25
지형·지질·퇴적물 분석으로 본 내륙습지의 역할 및 가치 -횡성 계천 포동습지를 대상으로-	26
Improved seasonal definition and projected future seasons in South Korea	28
영남 지역에서 가장 더운 곳은 대구인가?	31
한국의 향토민요(논매기소리) DB 구축과 과제-	33

[일반 분과 2 – 인문지리]

춘천시의 기업도시 정책에서 기업혁신파크 정책까지 회고와 전망: 장소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39
-----------------------------------------------------------	----

혁신시스템과 다층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에듀테크 산업의 혁신 역학	41
머신러닝을 활용한 수도권 마약 전파 분석	44
우리나라 도시축소의 공간적 특성 분석: 인구집중구역의 변화를 중심으로	45
플랫폼 도시의 상업공간과 상업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고찰	47
한반도 일제강점기 도쿄(東京)의 국내외 천도론(遷都論) 개관	48
박정희 정권 말기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고찰: '입지선정'과 '도시기본구조'를 중심으로	58

[일반 분과 3 – 지리교육]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의 유럽지리 서술에 대한 비판적 고찰	73
2022 개정 초등사회과 지리영역 교육과정의 언어 네트워크 구조 분석	78

[학술 답사]

청주의 원도심을 만나다: 성안동-중앙동 일대	87
--------------------------------	----

특별 분과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에서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역할

합동강의실(1동 148호)

13:10~14:30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에서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역할

권상철*

(*제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IB교육, IB교육교사인증, 지역사회참여, 교육과 지역발전

교육은 지역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때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또한 교육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발전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교육의 중요성과 발전에의 기여는 오랫동안 당연시 여겨져 왔지만, 최근 교육의 변화 필요성과 더불어 지역 차원에서의 교육의 변혁과 지역발전과의 연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국제화특구,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데, 지역 차원에서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방소멸을 막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IB교육은 2024년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 중 춘천시, 구미시, 대구시, 제주도, 안동시-예천군, 그리고 전북과 전남 일부 시군에서 포함하고 있다. 초기 국제학교에서만 운영되며 교육의 서구화, 엘리트 교육 등의 반대를 넘어 공교육에서도 확대되는 최근의 변화에 비추어 IB교육의 교과 내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측면에서 지리학과 지리교육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IB교육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리학과 지리교육과에서의 연구와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다. 첫째는 IB교육은 어느 나라에서 배우든 문제없이 통용될 수 있는 국제적인 교육과정으로 국제적 소양, 개념 중심 교육, 탐구 중심의 학습, 연구 능력 함양 등을 지향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사례는 해당 국가와 지역에서 발굴하고 이를 세계적 맥락과 연결하는 접근을 취한다(그림 1).



IB교육의 교수-학습은 외곽의 국제적 소양(Int'l Mindedness)에서 IB 학습자상으로 접근

<그림 1> IB교육의 DP, MYP, PYP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디플로마 프로그램(DP)의 경우 6개 과목군(언어와 문학(모국어), 언어 습득(외국어), 개인과 사회, 과학, 수학, 예술) 중 개인과 사회에 지리 교과가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영역 3가지인 지식이론(Theory of Knowledge), 소논문(Extended Essay), 창의·활동·봉사(Creativity, Action, Service) 중 소논문과 창의·활동·봉사는 지역사회에서 주제와 활동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높게 나타난다. 중학교 프로그램(MYP)의 경우 개인, 공동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공동체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문제 발굴과 조사, 협력, 소통 등의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는 기회를 가진다. 초등학교 프로그램(PYP)은 초교과적 주제로 우리 모두의 지구,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 등 6가지가 있으며, 졸업 프로젝트로 실생활에서 찾은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시나 발표를 진행한다.

이러한 개인 그리고 팀으로 조사, 연구, 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그리고/또는 연계하며 이루어지는데, 국제학교의 특성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참여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가는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학교의 교사들은 대다수 국어, 한국사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어서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생들 또한 대다수 외부에서 유입되어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IB교육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지역과 세계적 맥락의 상호적 관계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늘어날 것이다. 프로젝트 학습이 탐구 기반과 개념 이해, 사고와 연구, 의사소통 능력 등의 교수-학습 접근을 강조하기에 이러한 활동은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필요로 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지역사회 또한 학습력을 높이며 국제적 소양을 키우는 계기가 되어 상호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B교육의 서비스-러닝 또는 지역사회참여 활동은 대학교육의 이념인 교육, 연구, 공헌의 3가지를 지향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적 책무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기초를 일찍 초중고 교육에서부터 다루는 강점도 있다. 교육의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은 한국 교육과정에서도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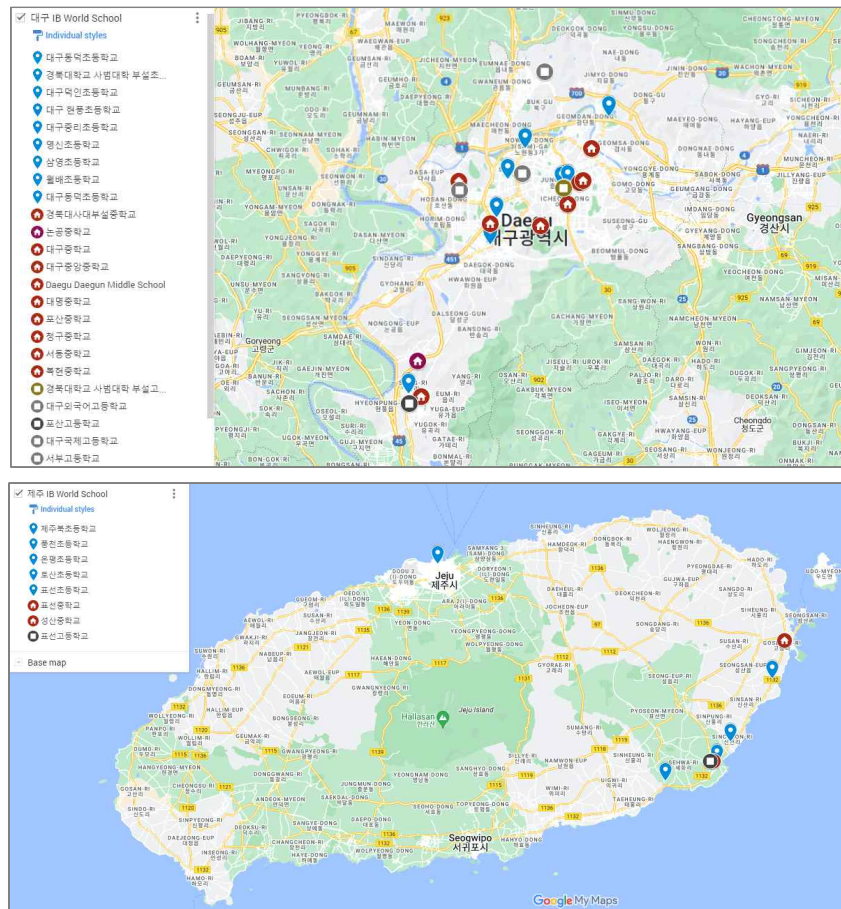
둘째는 IB교육이 교육과 지역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측면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접근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정주까지 지원하는 체제를 조성해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며 지역의 교육, 문화, 거주 기반을 개선해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정주 체제를 조성하고자 한다.

지역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IB교육은 대구와 제주 교육청이 2019년 IB DP 과정의 한국어화 추진 협약을 체결하며 시작해 현재 대구 교육청 월드스쿨은 DP 5개, MYP 9개, PYP 9개가 있으며, 제주 교육청 월드스쿨은 DP 1개, MYP 2개, PYP 5개가 있다. 최근 다수의 교육청에서 IB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IB본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교사연수를 진행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IB학교는 늘어날 전망이다. IB학교의 증가와 더불어 IB교사인증(IB Educator Certificate)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도 늘고 있는데 남서울대학교(2020)을 시작으로, 한동대학교, 인하대학교, 국·공립대학으로 대구교대(2021), 경인교대, 경북대학교(2024.3)가 있으며 제주대학교도 2024년 8월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IB교육의 DP과정 이수자의 대학입학은 2024년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대구와 제주의 IB DP 고등학교 졸업생의 결과는 IB 입학 전형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입학에서도 성과를 거두어 IB교육의 질과 역량 교육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졸업생의 추적 조사를 통해 실제 IB교육을 받은 학생이 대학교육에서도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후속 연구를 진행해 봐야 하지만 외국의 사례에서 IB교육을 받은 학생의 대학 진학률과 대학과정 이수

서 평균 이상의 성과를 보인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특히 흥미로운 접근은 미국의 경우 빈곤층이 집중하고 있는 지역에 대학 진학률과 대학교육의 이수율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IB교육을 AP과정과 더불어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IB학교 수는 전 세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특히 2005년 미국 경쟁력 강화 정책에 저소득층에게 IB교육을 이수하는 기회를 포함하며 2배 이상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후속 여럿의 실증 연구가 IB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대학 진학률과 졸업률은 일반 교육과정 학생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겨냥한 IB교육은 저소득층이 밀집한 도심 주변에서 확대되고 있다. 반면 오스트레일리아는 IB교육이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한국에서 IB교육을 최초로 공립학교에 적용한 대구와 제주 교육청은 서로 다른 IB교육 적용 방식을 보인다. IB DP과정의 경우 대구는 경북대부설고등학교 등 대학 진학 지향 고등학교에 일부 반만을 대상으로 IB과정을 운영하고, 제주는 농촌 지역의 표선고등학교 전교생에게 IB교육과정을 적용해 운영하였다. 초등 PYP과정의 경우도 대구는 인구 밀집지역의 학교에 IB교육을 적용하는 한편, 제주는 농촌 지역과 도시의 인구희박 지역 학교에 적용하는 차이를 보인다.



<그림 2> 대구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의 IB 학교 분포

교육은 현장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며, 지역사회 또한 교육과 연계되는 학습의 장으로 그리고 학습지역으로 성숙해지며 진정한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 지역의 연계는 마을교육공동체 논의로 전개되는데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학교의 교육 변화를 통해 미래핵심 역량을 기르고,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을 강화하여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지역교육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를 제기한다. 이러한 교육과 지역사회의 협력은 교육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현재 IB교육에서 강조하는 지역사회 참여 프로젝트에서 지역 이해의 기초를 필요로 하며, 여기에 지리학과 지리교육은 지리답사와 조사 등의 활동으로 구체적인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에서의 IB교육에 지리학은 교과 내용으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보다 광범위하게는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프로젝트 수행에서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의 선도적 역할로 학교와 지역의 연계와 호혜적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IB교육에서 대학의 역할은 IB교육교사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늘어나는 IB학교에 교사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지만, 다수의 교사들이 IB교육의 방법을 학습해 이를 한국 교육과정에도 적용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화한다는 면에서도 필요하다. 또한 IB교육의 DP과정의 핵심영역인 지식이론, 소논문, 창의·활동·봉사는 한국의 대학(원) 교육과정의 축약판으로 지역사회 프로젝트와 연관한 주제를 다루기에 지리학과 지리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B교육 관련 후속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관련에 기초하여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하나는 제주도 지역사회 조사와 연구 사례를 다양하게 진행해 IB학교의 프로젝트 수행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연계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지리 전공 대학생들과의 협업 기회 토대를 만들어 보고자 하며, 다른 하나는 IB교육은 IB학교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교수, 학습 역량 증가와 더불어 다수의 학교에서도 적용하며, 지역사회의 현안과 이슈에 대한 학습과 협력 활동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호적 관계를 확장해 지역 주민의 참여와 학습력을 높여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며 학습-지역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영택, 2022, 지속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하여, 살림터.
- 교육부, 2024,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 교육개혁 본격 시작 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 세이지 후쿠카/교육을바꾸는사람들 역, 2019, 국제바칼로레아의 모든 것: 왜 세계는 IB에 주목하는가, 21세기교육연구소.
- 송 제이슨, 2024, IB 교육,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스텝스톤.
- Coca, Vanessa et al, 2012, Working to My Potential: The Postsecondary Experiences of CPS Students in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The University of Chicago Consortium on Chicago School Research.
- Dickson, A., Perry, L. and Ledger, S., 2017, How accessible is IB schooling? Evidence from Australia,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16(1): 65-79.
- Harrison, Louise and Torres, Thierry, 2019, MYP by Concept 4 & 5 Geography,

Hodder Education.

Mills, H. E., 2013, The impact of US educational polic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B Primary Years Programme: A case study of an urban, low-income public school.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Oakes, Simon, 2017, IB Diploma Geography, Global Interactions: Study and Revision Guide, HL Core Extension, Hodder Education.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육과정의 국내 도입에 대한 비판적 측면에서의 지리적 담론

정승모*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글로벌교육전공)

주요어 : IB교육, 국제교육, 지역성, 국제적인 마음가짐

2021년 제주 및 대구 지역에 IB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부터 시작된 IB교육과정의 국내 도입은 2024년 2월 첫 IBDP(IB 고등교육과정) 졸업생을 성공적으로 배출한 이후 서울, 경기, 인천 및 충남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의 관심에 힘입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IB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개념기반 탐구 수업, 국제적인 마음가짐, 서술형 평가라는 진보적인 교육학적 요소와 더불어 세계적 대학 입학의 자격으로 통용될 수 있는 IBDP의 가치는 전국의 여러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IB교육과정의 세계적 확장은 비단 한국만의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 IB교육과정은 1960년대 유럽에서의 초기 개발 단계를 거쳐 1980년대 미국 지역에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크게 확장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아시아 지역의 국제학교 성장에 힘입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 이후로는 한국과 일본의 교육 혁신의 방안으로 국가 주도로 도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IB교육과정은 점진적으로 규모를 세계적으로 확장해 나갔다.

IB 교육과정이 1964년 개발된 이래로 60년간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IB교육과정의 보편적 철학, 진보적인 교육학적 가치 및 구조적인 특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IB교육과정은 세계적인 마음가짐(International Mindedness)을 사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IB교육과정이 가지는 교육적 정체성이 세계적인 보편성에 기대에 있음을 의미한다. 즉, IB교육과정은 보편적 가치(평등, 자유, 배려, 열린 자세 등)를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대표적으로 IB학습자상을 통해 드러나는데 IB가 내세우는 세계적인 마음가짐이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른 차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작용한다. 다른 의미로 IB가 내세우는 정체성과 가치가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역의 문화 및 가치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있고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학교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가치로 주장되어지는 것에 IB 교육이 내세우는 가치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IB교육과정은 구조적으로 세계의 모든 교육 환경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초등 과정(PYP)과 중등 과정(MYP)은 교육 방식과 가르쳐야 할 내용이 함께 포함된 일반적인 교육과정으로 제시되지 않고 교육 방식(Framework)만으로도 제시가 된다. 따라서 IB학교에서는 지역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 내용을 IB가 제시하는 교육 방식으로 전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확장하기에 유리한 구조이다. IBDP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언어를 모국어와 외국어 수준으로 2년의 학습 내용과 평가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학이나 사회 과목에서는 학습할 내용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관점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IB학교의 언어 정책에 있어서도 다양한 언어를 존중하는 방식(Multilingualism)을 통해 모국어를 포함한 언어가 존중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IB교육과정은 확장하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확장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의 공교육에 국제교육이 영향을 키워 나가는 현상에 대해서 지리적 안목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생겨나고 있다. IB교육과정의 국내 도입이라는 현상에 대한 판단에 비판적인 방식으로 지리적 안목이 필요한 이유는 이 현상의 대상인 한국의 공립학교가 지역성을 전제한 기관이라는 교육적 특수성과 도입의 내용이 되는 IB교육과정이 타국에 뿌리를 둔 국제교육의 갈래라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글로벌이라는 세 단계의 지리적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판적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먼저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학교는 지역적 정체성을 세대 간에 형성시키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지역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연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는 서로 착근되어야 한다. 즉 학교는 당위적으로 지역성을 띄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성이라는 것은 지리적 근접성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도덕적, 표현적 그리고 인지적인 가치 및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는 개인들이 소속감을 느끼는 개념이다. 즉 지역성은 문화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문화란 현재의 가치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도구로 한 집단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회에서 딜레마를 다루는 방식,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IB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따르는 IB의 규정과 절차가 지역사회의 관습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즉 IB학교의 제도적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학교를 향한 지역사회의 요구는 다양할 수 있는데 크게는 대입 제도와 IB교육의 일치부터 작게는 지역의 행사와 특성을 반영한 학교 운영, 지역 주민의 관점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의 사회 참여활동 그리고 지역의 맥락을 고려한 학생의 진로 지도 등이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적 이슈와 가치관을 교육적 맥락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제기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적 요구를 IB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비판적 검증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IB교육과정에서 주장하는 교육적 가치가 국가의 학교 교육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IB에서 강조하는 보편적인 가치란 세계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평화를 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세계 시민의 양성이라는 목적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세계인을 향한 열린 태도, 모든 지식에 대한 비판적인 검증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IB 교육과정을 공급하는 IBO는 글로벌 수준의 높은 품질을 지닌 교육의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제공하는 초국적 교육서비스 기관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IB교육과정이 국가교육과정과 경쟁하는 양상으로 흐를 경우 IB를 통한 교육의 혁신과 국가의 교육 목표를 어떻게 동시에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만약 국가의 교육적 신념이나 방향을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강조 혹은 보편적 가치에만 기대어 비판적인 검증을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담론으로의 흐름 그리고 국가의 교육적 품질과 공교육의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적 교육서비스의 등장과 같은 모습이 보일 경우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국가의 스케일에서 IB교육과정의 도입에 대해 던져 볼 수 있는 질문들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스케일의 측면에서 지역과 글로벌이라는 양 극단의 스펙트럼에 있는 교육적 요소들을 어떻게 일관된 방식으로 연결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다른 말로 IB 교육과정이 내세우는 국제적인 마음가짐(International Mindedness)를 어떻게 지역의 학교에서

복합적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는다. 국제적인 마음가짐의 개념을 살펴보자면 이는 초기에 다른 지역의 역사, 정치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의미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 사고 방식의 차이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없애고 공감 동정 및 열린 마음을 배양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발전해 나갔다. 더욱이 IB의 국제적인 마음가짐에는 행동을 통해 사회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정신이 들어 있다. 즉 IB학습자는 세계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지역적 맥락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교육과정의 맥락에서는 IB교육과정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육방식으로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IB교육과정을 사용하는 학교의 운영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적 수행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역과 글로벌이라는 스펙트럼 사이에서 IB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국의 학교들이 어떠한 방식과 접근으로 지역과 세계적 가치를 연결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IB교육과정의 국내 도입에 따른 현상을 판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세계와 지역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층위의 개념들을 지리적 안목에서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IB교육과정에서도 '로컬'이라는 용어로 지역성을 강조하고 있고 학습에 있어서도 문화와 관점의 고려, 지역적 자료의 개발 및 글로벌 이슈 및 개념과의 연결성 등을 추구하고 있기에 지리적 측면에서 IB교육과정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하지만 IB교육과정의 국내 도입에 대한 담론은 교육과정의 우수성의 측면에서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위에서 논의된 국제교육으로서의 IB교육과정 성격을 고려할 때 국내 도입에 대한 지리적 안목으로의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Barley, S. R, and Pamela, S. T., 1997, Institutionalization and structuration: Studying the links between action and institution, *Organization studies*, 18(1), 93-117.
- Bunnell, T., 2008, The exporting and franchising of elite English private schools: the emerging second wave,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 28(4), 383 - 93.
- Hill, I., 2012, Evolution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mindedness,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11(3), 245 - 261.
- Sampson, D. L. and Howard, P. S., 1957, A scale to measure world-minded attitud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5(1), 99-106.
- Schafft, K. A. and Biddle, C., 2013, Place and purpose in public education: School district mission statements and educational (dis)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20(1), 055-076.
- Suchman, M. C., 1995, Managing legitimacy: Strategic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571-610.
- Wiley, M. and Zald, M. N., 1968, The growth and transformation of educational accrediting agencies: An exploratory study in social control of institutions, *Sociology of Education*, 36-56.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에서 국제적 소양과 지리학 및 지리교육의 중요성

강호선*

(*브랜섬홀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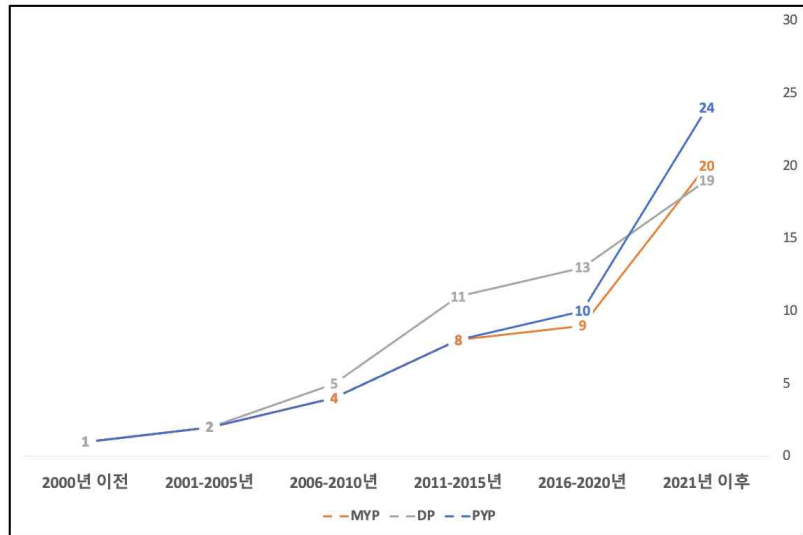
주요어 : IB 교육, 국제적 소양, PYP, MYP, DP, 지역적 맥락, 세계적 맥락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IBO)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더 나은, 그리고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학습자 교육을 목표로 전 세계의 학교에 수준 높고 도전적인 네 개의 프로그램인 Primary Years Programme(PYP), Middle Years Programme(MYP), Diploma Programme(DP), Career-related Programme(CP)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2월 기준, IBO 홈페이지에 따르면, IB 교육은 160여개 국가, 5700개 이상 학교에서 8,000여개의 IB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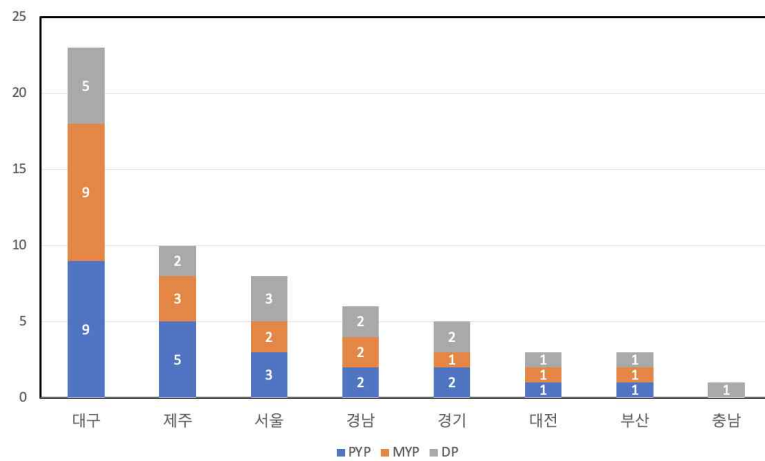
IB 교육은 공통의 인류애를 바탕으로 좀 더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소양(international-mindedness)을 지닌 학습자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적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여기에서 국제적 소양이란, 세상을 향한 열린 자세와 서로 간의 깊은 상호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하고(thinking), 살아가며(being), 행동하는(acting) 방식을 포함한 다면적인 개념(IBO, 2008)으로, 자기인식에서 시작하여 개인과 학교가 속한 지역·국가·문화적 환경뿐만 아니라 더 넓은 글로벌 관점을 탐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IB는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지니려면 먼저 세상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과 세계의 중요 이슈를 지속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IB 교육에서는 지역 및 세계적 맥락에 대한 탐구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국제적 소양을 함양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IB의 철학은 학교교육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공통적인 속성을 지니는 동시에 단위학교가 속한 지역 및 국가의 특수적인 맥락들이 교육과정 속에 반영되게 만든다.

IB 교육에서는 모든 교과들이 지역적이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다양한 이슈와 아이디어들을 탐구하는 것을 장려한다. IB는 이것은 학생과 교사들이 환경, 개발, 분쟁, 권리, 협력 및 거버넌스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세계와 관계 맺기, 인간의 공통성, 다양성, 상호 관련성을 탐구하여 문화 간 이해하기, 학습자가 고도로 연결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IB는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권력, 특권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신뢰를 기반하여 지구를 지키고, 자원을 보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교육이 더 나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림 1> 200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IB 프로그램의 도입



<그림 2> IB 프로그램의 지역별 도입 현황

한국에서 IB 도입은 2021년 이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림1). 현재, IBO가 인증한 한국의 IB world school은 총 43개 학교로, 대구, 제주, 서울, 경남, 경기, 대전, 부산에 분포하고 있다(그림2). IB 학교들은 IB의 교육 철학을 공유하면서도 그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다양한 이슈, 자원, 맥락 등을 반영하여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된다. 예컨대, 학생들은 지구온난화와 같은 세계적 이슈를 학습할 때, 그들이 속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현상들에 대한 관심에서 세계적 이슈들에 대한 학습을 시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IB 교육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프로그램이지만, 모든 교과가 그 지역 및 국가의 맥락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IB 교육에서 지리교육 및 지리학의 역할이 강조 될 수 있다. IB의 교육적 사명인 국제적 소양 함양을 위하여 지리교육 및 지리학의 역할이 직접적으로 기대되는 IB 프로그램 내의 세부 영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IB의 교수 접근 방법 영역이다. 모든 IB 프로그램들에서는 개념 기반, 탐구 기반 등 6가지의 교수 접근 방법을 강조한다. 그 중에서도 IB 교육은 실생활 사례와 맥락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자신의 경험과 주변 세계와 연과 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행동으로서의 봉사(service as action)' 영역이다. IB에서 실천과 경험을 통한 학습인 '행동(action)'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행동의 일부인 '봉사(service)'는 IB 커뮤니티에서 공유하고 있는 가치이다. IB 교육에서 학습자들은 개인적으로 이러한 봉사를 통해 타인의 삶과 환경에 긍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PYP의 초학문적 주제 영역이다. 특히, 우리가 속한 시간과 공간은 어디인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구촌의 공생과 상생 등은 지리교육 및 지리학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PYP의 6개의 초학문적 주제 영역은 MYP의 세계적 맥락인, 자아와 관계, 개인적·문화적 표현, 시·공간의 방향성, 과학과 기술의 혁신, 공정성과 발전으로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MYP의 세계적 맥락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지리교육 및 지리학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아울러, MYP의 공동체 프로젝트, 개인프로젝트, DP의 CAS(창의, 활동, 봉사) 프로그램 역시 지역 연계가 필수적으로, 지리학 및 지리교육의 적극적인 관심 및 역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2007, Making the PYP happen:A curriculum framework for international primary education,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2008, What is an IB education?,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2014, MYP: From principles into practic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2015, DP: From principles into practic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일반 분과 1

자연지리

시청각실(2동 331호)

14:40~16:20

남극 빙하지형 지형분석 연구의 함의

1. 해저 빙하지형 분석을 이용한 고빙하 유역 복원

이현희*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주요어 : 남극 빙봉, 빙해양 지형, 표면 거칠기, 수심 위치 지수, 고빙하 복원

남극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인자들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변화를 일으켰으며, 이러한 인자 간의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많은 고환경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특히 고환경 분야에서는 빙하 코어와 해양퇴적물 코어라는 저장소로부터 다양한 환경 지시자(proxy)를 분석하여 고기후의 변화와 고해양의 환경을 상세히 복원하는 연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두 저장소의 단편으로부터 얻는 데이터는 남극이라는 지역의 가장 큰 특이성인 빙상이라는 존재의 규모 변화를 직접적으로 복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빙하 코어는 빙하 최상부의 흐름이 적은 집적대에서 가장 오랜 기록을 얻을 수 있지만, 빙하의 소모 정보나 수평적인 거동 변화에 대한 정보가 없다. 또한 해양퇴적물의 경우 획득한 위치에서만 빙하의 수평적 변화만을 복원할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의 제한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해양과 육상에 보존되어 있는 빙하지형의 존재는 남극의 과거 빙하 규모 변화를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써 활용될 가치가 매우 높다. 빙하지형의 종류, 패턴, 범위 등의 분석은 과거 빙하의 형태와 흐름 방향, 그리고 빙하 유역 간의 물리적 상호 작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더불어 근래의 다양한 지형 분석 기법과 측량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해저 환경에서도 정밀한 수심 자료를 획득하고 지형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남극 로스해 대륙붕의 수심자료를 이용해 표면 거칠기 분석과 수심 위치 지수 분석을 하였으며, 거대 빙하 침식선형구조, 드럼린, 모레인, 빙하 접지대, 해저융기부, 해곡, 해퇴 등 다양한 빙해양 지형의 분포와 구조적 특성을 추정하였다. 또한 빙해양지형과 육상 빙하지형의 기록들을 기반으로 고빙하 “테라노바 빙봉”의 존재를 발견하고, 과거 빙하의 다차원적 유역 규모와 유역 간 물리적 상호 작용을 해석하여 구체적인 빙하 거동을 복원하였다. 또한 추후의 학술 발표를 통해 “2. 육상 빙하지형 분석을 이용한 고빙하 흐름 기작 복원”이라는 주제로 육상에서의 빙하지형이 지니는 학술적 가치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사사)

이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재원으로 극지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과제번호 : PE23090).

지형·지질·퇴적물 분석으로 본 내륙습지의 역할 및 가치 -횡성 계천 포동습지를 대상으로-

정근비* · 윤혜연** · 장동호* · 김다은***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팀, ***국립생태원 외래생물팀)

주요어 : 횡성 계천 포동습지, 지형·지질·퇴적물, 내륙습지, 습지 역할 및 가치

횡성 계천 포동습지(이하 포동습지)는 횡성댐 상류의 계천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하천습지이다. 하천습지는 하천의 수위와 유로가 수시로 변화하고 육상생태계와 수생태계를 이어주는 전이대(Ecotone) 역할을 함으로써 동·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하며, 자연제방 보호와 물질순환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성호·장동호, 2020). 포동습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중인 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임하댐과 함께 자연환경이 특히 우수하고, 하천습지 면적이 넓어 생태우수습지로 선정되었다(그림 1). 생태우수습지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이자 식생 및 지형·지질 등이 뛰어나 보전가치가 높은 장소를 의미한다(추연수 등,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횡성 계천 포동습지를 대상으로 지형·지질·퇴적물 분석을 실시하여 내륙습지로서의 역할 및 가치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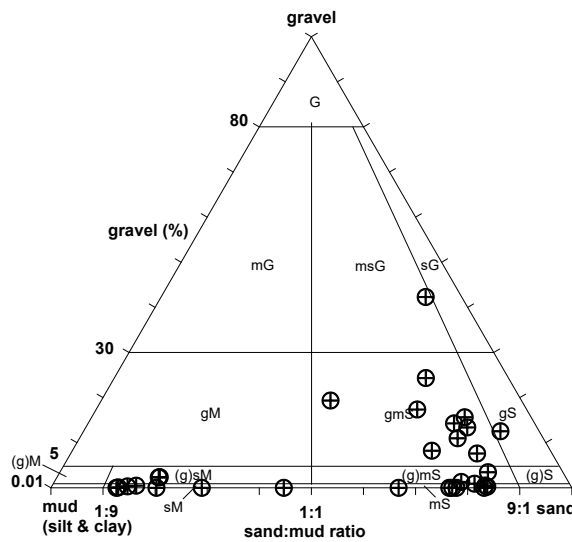


<그림 1> 횡성 계천 포동습지 전경

먼저, 포동습지의 지형·지질 분석을 위해 내·외부에 위치하는 지형·경관 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포동습지 내에 다양한 규모의 사력퇴적지가 발달되었고, 대부분 육화가 진행되어 초본 및 목본이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동습지 내에 과거 경작지로 이용된 지역이 횡성댐 건설 이후의 담수화 진행으로 일부는 수몰되고 일부는 둔치 형태로 존재하게 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습지 내 사력퇴적지 뿐만 아니라 소규모 물웅덩이, 여울, 기반암하상, 하안단구, 구하도, 미앤더코어 등이 다수 발달되어 있다.

포동습지 내부 지형변화 분석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갈수기/풍수기의 정사영상(30cm 급)을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시기별 토지피복도 작성 및 변화 탐지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습지 내 인공구조물과 경작지, 기반암하상 등의 지형유형에서는 면적 변화가 없었으나, 식생에 해당하는 초본 및 목본과 사력퇴적지, 수역의 면적 변화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퇴적물 분석에서는 총 12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하고, 토양 이화학적 분석과 입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습지 퇴적상은 '역니질사(gmS)', '(역)사질니((g)sM)', 니질사(mS)', '역질사(gS)', '사질니(sM)', '(역)니질사((g)mS)'로 분류되었다. 모든 지점의 평균입도는 3.88 ϕ 로 '극세립사(Very Fine sand)'에 해당하고 지점에 따라 조립사(Coarse sand)~세립실트(Fine silt)까지의 입도 특성이 나타났다(그림 2).



<그림 2> S-G-M 분류 삼각 다이어그램

포동습지는 하천습지로서 비교적 관리 및 보전이 잘 되고 있으며, 특히 습지가 위치한 계천은 상수원 확보 및 수질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여 중·장기적으로 볼 때 습지로서의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내륙습지 역할 및 가치 증대를 통한 향후 습지보호지역으로의 지정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사)

본 연구는 국립생태원 “내륙습지 정밀조사(‘23)(NIE-법정연구-2023-19)”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이성호·장동호, 2020, 항공사진 및 퇴적물 분석을 통한 섬진강 침실습지 경관변화와 관리 방안, 한국지형학회지, 27(3), 25-39.
 추연수·조광진·김미정·이창수·윤정도·임정철, 2020, 국내 생태우수습지의 유형별 외래식물 상 현황 및 특성, 응용생태공학회논문집, 7(3), 145-159.

Improved seasonal definition and projected future seasons in South Korea*

임아영*, 이은걸*, 오지은*, 송미선*, 최영은**, 최다솜***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주요어 : future climate change, seasonal definition, seasonal length, seasons, temperature, Sou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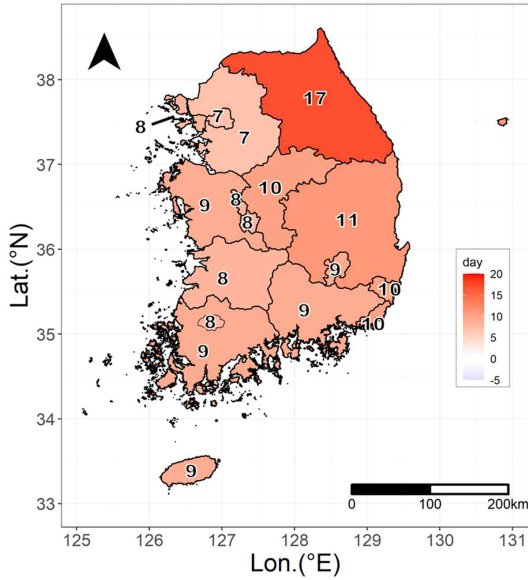
Seasons are fundamental climatological phenomena, and their changes have significantly affected the sustainability of nature and human society. Suitable criteria to define the seasonal indicators of start date and length of seasons are required for the timely planning of socio-economic activities. However, unsuitable cases of seasonal indicators have been identified in the seasonal definition used by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We devised the data processing method to calculate three seasonal indicators: start date, length, and abnormal days of seasons. The past (1921 - 2010) and future (2021 - 2100) climate data of daily mean temperature were used in estimating the three seasonal indicators; they were obtained from the weather stations in South Korea and under the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RCP) scenarios, respectively. The modified definitions with the moving averages of 15-, 31-, 45-, 61-, and 91-day improved in estimating the start date and length of seasons compared with the current KMA definition. Additionally, abnormal days of seasons in the modified definitions were found to reduce significantly. Under the RCP8.5 scenario, the earlier advance of spring and summer by 4.9 and 3.9 days per decade, respectively, and the delayed autumn and winter by 3.2 and 2.0 days per decade, respectively, were expected over the 21st century. Correspondingly, the extended summer and the shortened winter by 7.1 days per decade and 5.1 days per decade were projected, respectively. The estimated future changes in seasons using the improved seasonal definition can be used for socio-economic sectors and the general public to adapt to a warmer climate.

* 본 발표내용은 아래의 논문의 결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

Lee, E., Im, A., Oh, J., Song, M., Choi, Y., & Choi, D. (2022). Improved seasonal definition and projected future seasons in South Korea. Meteorological Applications, 29(6), e2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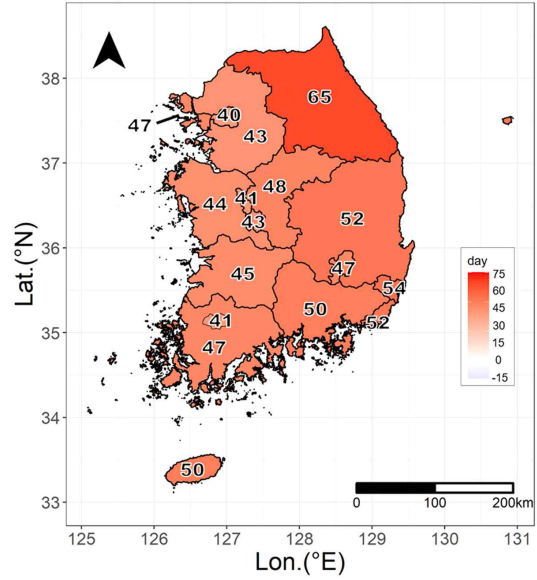
RCP2.6

Sum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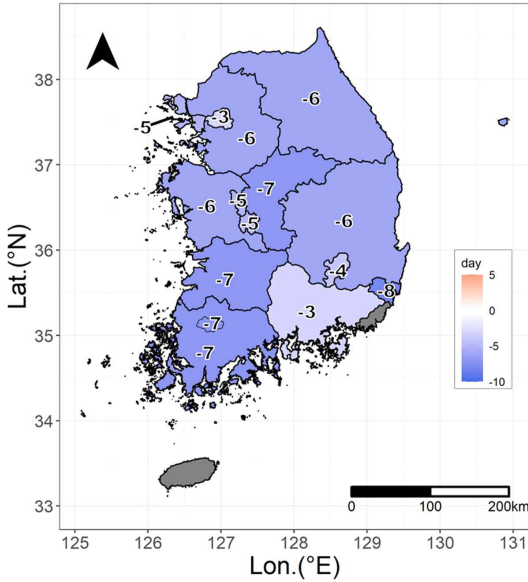


RCP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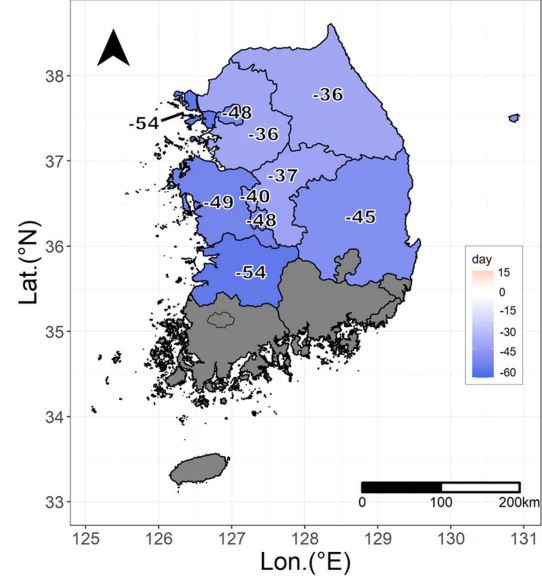
Summer



Winter



Winter



<Figure 1> Differences in seasonal length between the early (2021 - 2030) and the late (2091 - 2100) periods of the 21st century, estimated using the seasonal definition of 91-day moving average, in the 17 administration regions of South Korea during summer and winter under the RCP2.6 (left panel) and RCP8.5 (right panel). Provinces and cities with grey colour are the regions in which the winter was expected to be disappeared under the future scenarios.

(사사)

This study was partially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T) (NRF-2020R1F1A1048886) and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KMI2022-01112).

영남 지역에서 가장 더운 곳은 대구인가?1)

이광률*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대구, 극한 고온, 일최고기온, 폭염, 열대야

우리나라의 도시 중 대구는 대다수 국민들에 의해 더운 도시로 인식되어 왔다. 1942년 대구에서 측정된 일최고기온 40.0℃는 2017년까지 우리나라 일최고기온 극값 1위를 기록하였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정 도시의 극한 고온을 주제로 한 연구의 상당수는 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김해동 등, 2000; 김상윤·민경덕, 2001; 이광률, 2011; 김상현 등, 2014; 김진아 등, 2015; 김지혜·김해동, 2017; 권용석, 2018). 2011년 대구 시민과 타 지역 주민들에게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대구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가장 먼 저 떠오르는 것은 더위가 22.6%로서 1위를 차지하였다(엄봉훈·김금용, 2013). 그리고 2016년부터는 '대프리카'라는 지역 차별적 언어로 대구의 더위가 빗대어 표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8년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고의 폭염으로 우리나라 상당수 지역의 일최고기온 기록이 경신되면서, 1942년 대구의 40.0℃는 현재 우리나라 일최고기온 극값 6위에 해당하며, 영남 지역 중에서는 의성이 40.4℃로서 대구보다 더 높은 일최고기온 극값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구를 포함한 영남 지역 15개 지점을 대상으로 연별 일최고기온, 7,8월 일최고기온,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등 극한 고온을 나타내는 기상 관측값의 변화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영남 지역의 극한 고온 발생 경향을 검토 및 전망하여, 영남 지역의 극서지로서 대구의 위상을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영남 지역에서 일최고기온 극값 1위는 의성이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만 보면, 경주에서 일최고기온 극값의 발생 빈도가 가장 잦다. 대구의 일최고기온 극값 10위 내 기록은 모두 40년 이전의 기록이다. 연별 일최고기온은 1990년대까지 대구가 영남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높았지만 2000년대에는 밀양, 합천에서, 2010년대부터는 의령, 경주에서 대구보다 더 높은 값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이로 볼 때, 향후에는 의령, 경주, 밀양이 대구보다 더 높은 일최고기온 극값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7~8월 일별 일최고기온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구가 영남 지역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평균 일최고 기온이 가장 높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밀양, 양산, 의성, 의령 등이 대구보다 더 높은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7~8월 일최고기온의 변화 추이로 볼 때, 앞으로 영남 지역에서는 밀양, 양산, 의령 등에서 7~8월 일최고기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는 15개 지점 중 중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폭염일수는 지난 50년 동안 평균적으로 대구에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까지 영남 지역에서 폭염이 가장 심한 곳은 대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령, 경주, 북창원 등에서 폭염일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들 지역에서 대구보다 더 심한 폭염이 나타날 수도 있다. 연간 열대야일수는 평균적으로 포항에서 가장 높아서 포항은 영남 지역에서 열대야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반면, 대

* 이 발표문은 기후연구 19권 1호 '대구: 영남 지역에서 가장 더운 곳인가?'를 요약한 것입니다.

구는 포항, 양산보다 열대야의 발생 빈도가 낮았으며, 앞으로도 포항, 북창원, 양산에서 대구보다 열대야가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보면, 지난 50년 동안 대구는 영남 지역에서 폭염이 가장 심한 곳이었지만, 열대야는 포항, 양산보다 덜 발생하였다. 일최고기온은 대구가 2000년대 이전까지 영남 지역에서 가장 높았지만, 2010년대 이후부터는 대구보다 일최고기온이 더 높은 지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밀양, 경주, 양산, 의령, 의성 등에서 대구보다 더 높은 일최고기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대구는 2000년대 이전까지 영남 지역에서 여름철에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이었지만, 2010년대부터는 다른 여러 지역에서 대구보다 더 심한 극한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구는 현재와 미래에 영남 지역에서 가장 더운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문헌)

- 권용석, 2018, 도시구조적 차원에서 바라본 대구 대도시 구역의 폭염 가중원인 추정과 해결과제, 국토연구, 98, 23-35.
- 김상윤, 민경덕, 2001, 지형과 지표특성이 여름철 대구지역의 국지순환과 기온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상학회지, 37(5), 487-512.
- 김상현, 조창범, 김해동, 2014, 지상 고밀도 관측 시스템을 이용한 대구의 여름철 고온현상 조사, 한국환경과학회지, 23(9), 1619-1626.
- 김진아, 김규량, 김백조, 2015, 대구와 제주의 폭염 및 열대야 발생 특성, 한국환경과학회지, 24(11), 1493-1500.
- 김지혜, 김해동, 2017, 2016년 여름철 폭염 시기 대구의 기온공간분포 특성, 한국환경과학회지, 26(9), 1023-1029.
- 김해동, 김수봉, 정응호, 2000, 대구의 최근 난후기 동안의 기온 경향분석에 관한 연구 - 타시도와의 비교 -, 환경과학논집, 5(1), 93-107.
- 엄봉훈 · 김금용, 2013, 대구광역시 도시이미지에 대한 지역 내외 주민 의식의 경시적 변화 비교 - 대표 이미지와 환경 이미지를 중심으로 -, 한국조경학회지, 41(3), 12~21.
- 이광률, 2011, 대구·경북지역의 일최고기온 현황과 기후 요소간의 관계, 기후연구, 6(3), 187-199.

한국의 향토민요(논매기소리) DB 구축과 과제

장동호* · 임은진**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향토민요, 논매기소리, 디지털화, 전자문화지도

1. 서론

민요는 그 시대의 보편적 정서와 생활이 투영된 서민들의 노래로,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통하지 않고 민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유대안, 2016). 그중 논매기소리는 민중들의 대표적인 노동요로 농경지에서 잡초를 뽑으며 부르는 민요이다. 이러한 논매기소리는 논농사가 가능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분포하며, 농촌 지역민들의 가치관과 정서 등이 담겨있다(이소라, 2002). 논매기소리로 많이 전승되는 향토민요는 우리나라의 농경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중의 삶을 이해하며 우리 음악의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사회적 역할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박선애, 2021). 아울러 향토민요는 지리적으로 각 지역의 풍토와 문화, 역사와 사회성이 반영되어 지역성, 나아가 지역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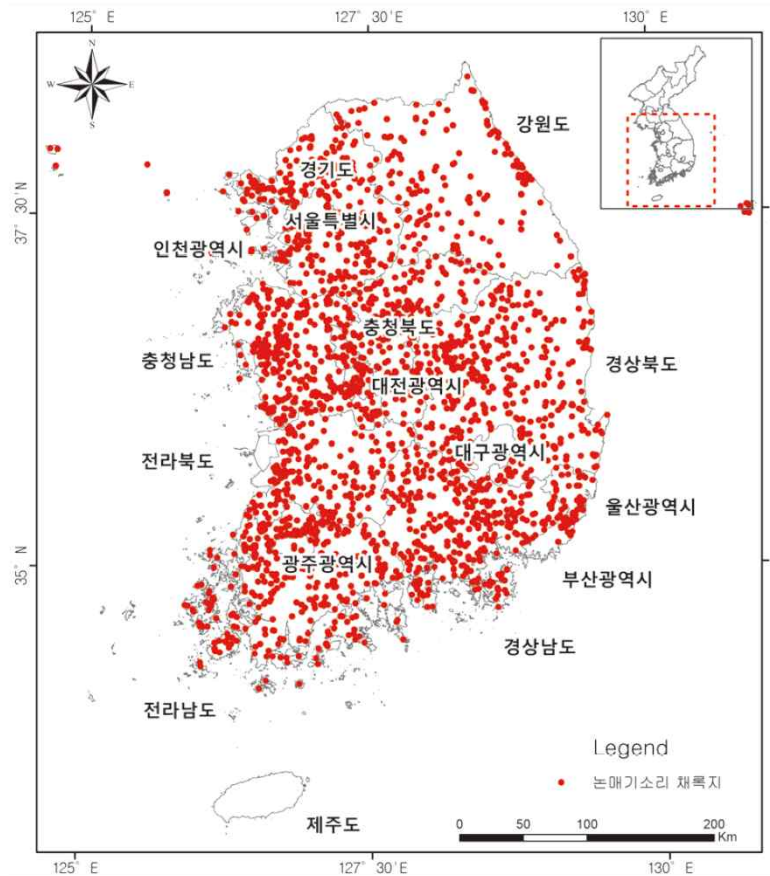
최근에는 민요의 예술적 가치를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요를 알릴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민요교육은 음악의 모국어를 터득하게 하는 음악 언어 교육의 기본인 것이다. 즉 민요는 자국의 언어로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자국의 언어와 가장 잘 맞는 음악적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요 속에는 그들 사회에 속해있는 가치관, 우주관, 인간존중과 생명존중 등이 담겨 있기 때문에 민족의식을 형성시킬 수 있다(최태현, 2005).

향토민요 중 논매기소리는 현재 전승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논매기는 논농사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다. 옛날에는 제초제가 없었으므로 손으로 적게는 1, 2번 많게는 3, 4번 땀을 흘리며, 이때 품앗이를 하거나 두레를 조직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논을 땀다. 하지만 제초제 사용으로 말미암아 1960년대 후반 이후 논을 매지 않게 되자, 논매기소리가 들판에서 사라지고 그 지역 선소리꾼의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게 되었고, 일부 (구)정신문화원과 MBC 등에서 녹음된 자료로 존재하고 있다.

이들 향토민요와 관련된 기존 자료는 대부분 자료 자체가 부족하여 연구 및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 한계가 뒤따른다. 이에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는 전국에서 수집된 테이프 형태의 논매기소리를 디지털화하였고, 이 자료와 함께 지형, 수계, 교통망 등 다양한 공간 자료를 종합하여 전자문화지도를 구축하였다. 특히, 구축된 DB 자료는 현장에서 지역 선소리꾼에게 직접 채집한 향토민요 자료를 복원 및 번역, 디지털화하여 음원 CD(MP3형식)이 첨부된 연구책자로 작성하였다. 또한 DB화된 음원은 전자문화지도 형태로 제공되며,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채록된 논매기소리 DB 자료를 소개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결과

본 연구지역은 현재의 북한과 제주도 지역을 제외한 남한지역의 육지와 도서가 그 대상이다(그림 1). 수집된 논매기소리는 최종 3,892곡이며,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지역적 분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 논매기소리 분포지도

본 연구에서는 논매기소리 유형을 세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첫째, 동일한 음율에 가사의 발음이 비슷한 노래는 하나의 노래로 분류하였고, 둘째, 각 노래가 주류의 형태를 보이는지 타 노래와 혼합된 것인지를 분류하였다. 셋째, 혼합된 노래의 경우 채록 당시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어떠한 혼합이 발생하였는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분류 결과 총 241개 유형으로 논매기소리가 분류되었으며, '상사 류'가 가장 많은 총 541곡(14.1%)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방아 류'(504곡, 13.1%), '입말류'(247곡, 6.4%) 순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논매기소리는 인문적·자연적 환경이 반영되며, 과거 전통 농촌사회로부터의 고유한 문화가 논매기소리에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논매기소리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문화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농촌 사회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에 본 연구는 전국의 논매기소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문화지역 구분에 따라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공간 분포 특성 분석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재분류된 노래 중 다른 노래와 섞이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 2,899곡에 대해 채록지의 위치를 기준으로 지도화하고 지역적 공간분포 특성을 살펴보았다. '상사 류'와 '방아 류'는 다른 노래에 비해 전국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중 '상사 류'는 문화중심지가 경상지역이며, 경기지역이 문화중심지인 '방아 류'는 한반도 중심에서 지방으로 전파가 이루어졌다. 입말 류는 경북 북동부와 경남 남동부, 전북 서부평야, 충남 남부, 전남 서남해안 그리고 강원 서부 지역에서 나타나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말 류'라는 유형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논매기소리는 과거 우리나라 들녘 어디에서나 쉽게 들을 수 있었던 논매기소리는 '상사 류'와 '방아 류'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적으로 각 지역만의 특색있는 논매기소리가 들려졌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지역 차원의 문화자원 발굴이나 노래의 전승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논매기소리는 문화의 전파 경로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문학이나 민속학, 고고학 등과의 후속 연구를 통해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사사)

이 연구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3572).

(참고문헌)

- 박선애, 2021, "강원도 민요를 통해 본 지역 문화 연구," 인문사회 21, 12(4), 3011-3024.
- 유대안, 2016, "경북 민요의 성격과 전승실태 - 경북 중남부지역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 한국민요학, 48, 167-212.
- 이소라·임은진·장동호·변정민, 2022, 「강원도 논매기소리 총서」, 충청남도: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민족음악연구소
- 이소라·임은진·장동호·변정민, 2022, 「경기도 논매기소리 음원집」, 충청남도: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민족음악연구소
- 최난경, 2009, "논매는 소리의 기능별 분류와 분포에 대한 고찰 -경상도 논매는 소리와 전라도 논매는 소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1, 298-336.

일반 분과 2

인문지리

합동강의실(1동 148호)

14:40~17:10

춘천시의 기업도시 정책에서 기업혁신파크 정책까지 회고와 전망: 장소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정성훈*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특구, 기업도시, 기업혁신파크, 장소적 리더십, 유의미 학습, 춘천시



<그림 1>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의 기업혁신파크 부지(3,684,149㎡)
(출처: 더존비즈온)

춘천시가 19년 전 기업도시 탈락의 한(恨)을 ‘기업혁신파크’ 유치로 풀어냈다..... (중략) 2005년 기업도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춘천)시로서는 기업도시 시즌2로 불리는 기업혁신파크 선정의 기쁨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당시 기업도시 사업지로 선정된 지자체와 비교해 시는 지역 발전 정체와 인구 역전을 겪기도 했다..... (중략) (춘천)시장은 기업혁신파크 선정이 확정된 11일 남산면 광판리를 찾아 “춘천이 기존의 틀을 뛰어 넘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유례없는 기회를 맞았다”며 “주거와 문화예술·교육 등 모든 기능이 연계된 도시 모델,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미래형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혁신파크 성공을 위한 새로운 준비를 이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강원일보, 2024. 3. 11.)

이 연구의 목적은 춘천시가 2005년에 경험했던 기업도시 유치 실패가 언론사가 밝혔듯이 과연 ‘탈락의 한(恨)’이었고, 2024년 3월에 기업도시 시즌2로 불리는 기업혁신파크 조성 후보지로의 선정이 과연 ‘획기적인 도약의 기회’일 수 있는지를 경제지리학적으로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발전 정책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장소적 리더십’(place leadership)에 초점을 두고, 기업도시(기업혁신파크 포함) 유치를 둘러싼 역사적인 진화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전적 의미에서 학습(learning)은 '직·간접적 경험이나 훈련에 의해 지속적으로 자각하고, 인지하며, 변화시키는 행동 변화'(위키백과)를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의 목표는 지도자의 ideation으로부터 설정되며(Peck, J., 2024), 지역 공동체는 이러한 은유를 통해서 지역 경제발전에 암묵적 합의와 그 역전을 경험한다.

이 연구는 춘천시 남산면 광관리를 둘러싼 혁신형 특구 정책의 변화 과정, 즉, 지역 발전 정책의 좌절, 실패, 성공에 대한 기대 과정을 유의미 학습(meaningful learning) 차원에서 장소적 리더십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원일보, 2024, 춘천시 '기업혁신파크'로 첨단지식산업도시 비상(비상)...19년 전 탈락 아 품 씻어, 2024. 3. 11.
- 구양미, 2024, 지역 산업 정책을 위한 장소 기반 리더십이 필요하다, 프레시안: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2024. 4. 26.
- 김태환·류승한·김광익·변필성·황승미, 2005,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 연구(II), 국토연구원.
- 더존비즈온·춘천시, 2023. 11., DOUZONE 기업혁신파크 사업제안서.
- 정성훈, 2024, 열린 특구 정책과 그 경쟁자들, 서울경제이슈브리프, 2023, No.12.
- 조철기, 2022, 지리교육학 개정판, 푸른길.
- 테다 스카치폴(박영신 역), 1990, 역사 사회학의 방법과 전망, 민영사.
- Broadhurst, K, Ferreira, J & Berkeley, 2021, 'Place leadership: developing a model to guide regional partnerships', Regional Studies, 55(3), pp.556-567.
- Peck, J., 2024, 'Ideas, ideation, institutions, and geographical political economy', 2024 AAG Annual Meeting Session, Honolulu, April 16-20, 2024.

혁신시스템과 다층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에듀테크 산업의 혁신 역할

김수경*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에듀테크 산업, 혁신시스템, TIS, 다층적 관점, Multi-level Perspective (MLP)

코로나19 이후 국내외에서 에듀테크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관련 정책적, 학술적 관심이 뚜렷이 증가했다. 2023년 9월 교육부는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해 “모든 교사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 맞춤 교육’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공교육과 에듀테크가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 정책에서 에듀테크의 혁신은 우선적으로 1) 교사를 지원하고 공교육 혁신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시되며, 2) 높은 기술적 경쟁력을 지니며 엄격한 규제와 공교육 진입장벽이 완화된다면 해외시장 확장 등을 통해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발표는 한편으로는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이 기존 교육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동시에 에듀테크 기업들의 혁신 활동이 정부 등에 의해 특정한 방향으로 지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듀테크 산업의 혁신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 부상하고 있는 에듀테크 산업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통적 교육산업과 교육시스템과 맺는 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전망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에듀테크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정책적 관점에서의 에듀테크 산업 육성방안이나, 교육적 관점에서의 에듀테크의 교육적 효과와 활용방안, 학교환경으로의 통합방안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에듀테크 기업의 관점에서 에듀테크 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혁신과정을 분석한다. 경제지리학에서 혁신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관점은 혁신시스템(innovation systems) 관점이다. 혁신시스템은 어떤 기업, 비기업 행위자나 제도가 혁신과정에서 중요한지, 시스템 구성요소 간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갖는다(Edquist, 2005). 한편, 혁신을 바라보는 다른 대표적 관점으로 다층적 관점(multi-level perspective, MLP)이 있다. 다층적 관점은 니치, 레짐, 환경이라는 세 가지 층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을 설명한다. 이는 SST(social study of technology)에서 발전한 접근인데, ‘기술’이 사회적 관습과 제도, 물리적 환경과 맺는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Truffer, 2008).

한편, 혁신시스템은 혁신을 저해하는 외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Markard & Truffer, 2008), MLP는 거시적 설명에 치중하여 행위자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며 (Ortt & Kamp, 2022) 지리적 측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Coenen et al, 2012)는 비판을 받아왔다. 혁신연구자들은 두 관점을 결합함으로써 각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Markard & Truffer, 2008). 본 연구는 혁신시스템과 MLP를 결합한 관점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시스템을 주요 틀로 하여 중요한 시스템 구성요소와 요소들 간 관계를 탐색했으며, MLP는 그 관계의 양상을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사용했다.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택하였으며, 2024년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21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이하 교육박람회)에서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질문은 “에듀테크 기업은 혁신활동에 어떤 협력파트너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가?”이다. 이를 통해 한국 에듀테크의 기술적 혁신시스템(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TIS)의 구조를 기업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두 번째 연구질문은 “에듀테크 기업은 어떤 요인들이 혁신활동을 저해한다고 인식하는가”이다. 이는 니치에 속하는 에듀테크 기업들이 레짐과 환경요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세 번째 연구질문은 “에듀테크 기업은 정부정책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인식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영향을 다르게 인식하는가”이다. 교육시스템 내에서 정부는 니치의 촉진자이자 레짐 행위자, 그리고 주요 구매자로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 이 질문을 통해 기업의 관점에서 정부의 어떤 역할이 더 두드러지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이 더 중요성을 갖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동시에 중앙과 지방정부의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잠재적 지리적 함의를 탐색하고자 했다.

네 번째 연구질문은 “에듀테크 제품의 기술적 특징이 레짐과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인식과 어떤 연관을 보이는가”이다. 이를 통해 ‘기술’의 물질적 특성이 혁신과 다층적 역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의 의의를 가진다. 첫 번째로, 한국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정책적, 교육적, 기업사례에 치중된 관점이 아닌 혁신시스템과 MLP의 통합적 접근을 적용하여 에듀테크 산업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에듀테크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과 촉진하는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파악한 한국 에듀테크 혁신시스템의 특수한 구조와 역학을 국가 간 비교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이론적 측면에서, 혁신을 더 넓은 사회공간적 맥락에 위치시키는 경제지리적 관점이 에듀테크 산업을 이해함에도 유용함을 보였다. 또한 혁신시스템 연구에서 교육산업을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기존 연구에서 교육은 혁신가능성을 가진 산업이 기보다는 혁신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나 분배시스템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에듀테크 산업이 부상하며 이제 교육은 시장잠재력이 높은 투자대상으로 인식이 전환되어가고 있다. 또한 에듀테크 산업이 가속화하는 교육의 시장화는 혁신시스템의 주요 요소인 교육, 훈련 시스템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혁신시스템 연구자들의 주목이 필요하다. 더불어, 혁신연구에서 혁신시스템과 MLP를 결합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 관점을 더 구체화하는데 기여했다.

(참고문헌)

- Coenen, L., Benneworth, P., & Truffer, B. (2012). Toward a spatial perspective on sustainability transitions. *Research policy*, 41(6), 968-979. <https://doi.org/https://doi.org/10.1016/j.respol.2012.02.014>
- Edquist, C. (2005). Systems of Innovation: Perspectives and Challenges. In J. Fagerberg, D. C. Mowery, & R. R. Nelson (Eds.), *The Oxford handbook of innov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Markard, J., & Truffer, B. (2008).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s and the multi-level

perspective: Towards an integrated framework. *Research policy*, 37(4), 596-615.
<https://doi.org/10.1016/j.respol.2008.01.004>

- Ortt, J. R., & Kamp, L. M. (2022). A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framework to formulate niche introduction strategies for companies prior to large-scale diffus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80, 121671.
- Truffer, B. (2008). Society, technology, and region: contributions from the social study of technology to economic geography. *Environment and Planning A*, 40(4), 966-985.

머신러닝을 활용한 수도권 마약 전파 분석

임창민*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마약류,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머신러닝, 지리적 랜덤포레스트, 공간분석

흔히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은 강력한 중독성과 위험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마약이다.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년간 메스암페타민 복용이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대검찰청, 2020).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 범죄자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배 증가하면서(대검찰청, 2012; 2022), 마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청소년층의 마약 복용 증가는 단순한 범죄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이렇게 급증하는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약 전파 및 확산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마약 전파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마약 전파 양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간 분석이 필수적이나, 본격적인 공간분석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의 메스암페타민 전파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핫스팟 분석 방법과 머신러닝 모형 중 하나인 지리적 랜덤 포레스트(Geographical random forest) 기법을 적용하였다. 핫스팟 분석 결과, 서울의 강남구와 인천의 중구가 메스암페타민 전파 및 확산의 중심지역으로 확인되었다.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유흥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메스암페타민 전파와 관련이 있었으며, 인천 중구는 인천항만, 인천공항 등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서의 특성이 메스암페타민 확산과 관련이 있었다. 지리적 랜덤포레스트 모형 분석 결과, 지역 별로 메스암페타민 전파 및 확산의 주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 메스암페타민 확산에 취약하다고 나타났다. 경기도 및 인천은 각각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외국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메스암페타민이 보다 쉽게 전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메스암페타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선 서울 강남구와 인천 중구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마약류에 있어서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성에 최적화된 관리 및 단속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 대검찰청, 2012,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대검찰청, 2020, 2019 마약류 범죄백서.
- 대검찰청, 2022, 2021 마약류 범죄백서.

우리나라 도시축소의 공간적 특성 분석: 인구집중구역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재현* · 조대현**

(*한국도시연구소,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도시축소, 인구감소지역, 상대적 인구집중구역, 압축도시, 도시재생

전례 없는 인구감소와 인구집중 현상이 국내 다수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며, 도시 축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전체로서의 개별 도시를 분석 단위로 하여 축소 정도, 요인, 특성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어, 도시 내부의 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스마트 축소, 압축도시 등의 정책적 방향은 개별 도시 내에서의 재구조화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도시축소의 공간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구감소가 진행 중인 도시 내부에서의 공간적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0년과 2020년의 500m 격자 인구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상대적 인구집중구역을 설정하고 그 변화 특성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별 인구변화 분석 결과 인구감소 시군(5% 이상 감소)은 89개, 인구유지 시군(-5~5%)은 17개, 인구증가 시군(5% 이상 증가)은 61개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시군 수준에서 커널밀도를 기반으로 두 시점의 상대적 인구집중구역을 비교한 결과 인구증가 시군은 집중구역의 증대 및 고밀화가 뚜렷한 반면 인구감소 시군은 그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셋째,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상대적 인구집중구역 변화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표 1). 대체로 집중구역의 면적과 인구수, 인구밀도 등이 감소하며 축소되고 압축도는 저하되는 경향이 강했지만, 일부 시군은 인구감소 속에서도 집중구역의 면적이 증가하는 등 차이를 드러내었다. 특히 군집 4 '소규모 구역 급감 & 최대집중구역 유지형'은 축소 경향이 가장 뚜렷하였으며, 가장 많은 시군이 포함되었다. 넷째, 유형별로 인구, 주택, 종사자 등 세부 특성을 파악하고 압축적 공간구조로의 전환이라는 방향 속에서 차별적인 대응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표 1> 상대적 인구집중구역의 변화 유형별 주요 시군

군집	유형	시군 수	주요 시군
1	최대집중구역 등 기존 구역 확장형	19	강릉, 김천, 제천, 공주, 여수 등
2	주요 구역 축소(분리) & 신생 구역 형성형	7	서울, 부산, 대구, 창원 등
3	소규모 구역 급감 & 최대집중구역 확장형	4	양양, 거창, 남원 등
4	소규모 구역 급감 & 최대집중구역 유지형	31	태백, 영동, 태안, 정읍, 고흥, 강진, 문경, 합천 등
5	전체적인 점진 축소형	28	속초, 옥천, 예산, 고창, 곡성, 영양, 청도, 함양 등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전체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는 것을 넘어, 도시 내부의 공간적 변화 패턴을 유형화하고 차별화된 도시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인구집중구역의 축소와 소규모 집중구역의 해체 과정에서 압축도가 저하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압축적 도시공간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기반으로 유형별 공간적 축소 패턴을 고려하여 스포틀 관리 계획, 집중구역 유지를 위한 도시규모적정화계획, 공동화 방지를 위한 도시재생 계획 등의 수립이 요구된다.

(사사)

본 논문은 2023학년도 경북대학교 신입교원 정착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플랫폼 도시의 상업공간과 상업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고찰

홍동표 · 류연택*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플랫폼 도시, 플랫폼 자본주의, 플랫폼 이용문화, 상업공간, 상업젠트리피케이션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도시 내 상업공간의 형성과 쇠퇴, 그리고 상업젠트리피케이션이 플랫폼 도시주의 맥락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탐구한다. 플랫폼 도시 담론은 스마트 도시 담론에서 진화한 것으로(Caprotti et al., 2022), 특히 도시 거버넌스 측면에서 도시민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홍다솜·백일순, 2022). 또한 플랫폼 도시의 도시민은 플랫폼을 매개로 상업공간이 형성되거나, 플랫폼 이용문화에 따라 상업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과정을 목격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상업공간의 형성과 쇠퇴에 있어 과거보다 동시적, 단기적, 즉시적인 정보의 흐름과 의사결정에 의해 나타나는데, 이는 플랫폼이라는 매개체가 지닌 기술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도시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경제 관련 문헌과 도시민 입장에서의 경험적 분석을 통해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상업공간과 상업젠트리피케이션의 특성을 분석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상업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내 쇠퇴 지역을 재활성화하기 때문에 도시정부 입장에서 상업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을 자연적인 도시재생의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촉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는 도시재생 본연의 목적과는 다르게, 기존의 지역성을 내포하지 못하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 자본 중심의 상업공간으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상권 활성화 및 쇠퇴의 주기가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도시 내 상권이 전통적인 도시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여 형성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플랫폼 자본주의 맥락에서는 지역 상권의 이미지가 단기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며, 상권의 쇠퇴를 비교적 빠르게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에는 도시정부, 기업자본, 지역상인과 같이 도시경제의 행위자로서 생산자 측면에서 상업공간과 상업젠트리피케이션이 논의되었다면, 소비자 측면에서 도시민의 플랫폼 이용문화와 상업공간과의 관계가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자본주의 물질에서 표출되는 새로운 도시 공간과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플랫폼 도시 공간의 형성과 쇠퇴의 과정을 새로운 접근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홍다솜·백일순, 2022, 플랫폼의 성장과 도시공간의 변화: 플랫폼 도시주의의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5(2), 83-97.

Caprotti, F., Chang, I. C. C., and Joss, S., 2022, Beyond the smart city: a typology of platform urbanism urban transformations, Urban Transformations, 4, 1-21.

한반도 일제강점기 도쿄(東京)의 국내외 천도론(遷都論) 개관

최원희*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주요어 : 일제강점기, 도쿄(東京), 천도론(遷都論), 경성천도론, 평양천도론

1. 서론

일제(日帝)는 청일전쟁(淸日戰爭, 1894)과 러일전쟁(露日戰爭, 1904~1905)을 거쳐서 만주사변(滿洲事變, 1931)으로 만주국(滿洲國)을 수립(1932)하면서 대륙침략을 본격화했다. 일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전쟁 수행과 식민지 경영의 본거지로서 제국(帝國)의 수도(首都) 즉 제도(帝都) 도쿄(東京)의 '입지적 부적합성'을 어떤 형태로든지 해소해야 한다는데에 정부, 민간 및 군대가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수도 도쿄의 입지적 부적합성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들은 수도 도쿄의 이전(移轉), 즉 천도(遷都) 논의로 이어졌다. 이러한 수도 도쿄의 천도 논의는 국내천도(國內遷都)와 국외천도(國外遷都)로 구분되어 전개되었다.

수도 도쿄의 국내천도 논의는 당위성, 시급성 등에 있어서 국외천도 논의에 압도되어 논의 자체가 미미했다. 그러나, 수도 도쿄의 국외천도 논의 또한 사안의 심대성(深大性)에 따라 논의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가운데 수도 도쿄의 국외천도 논의는 식민지 조선(朝鮮)의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수도 도쿄의 천도 논의는 국내외 천도를 막론하고, 모두 논의로만 그치고, 실제의 실현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간, 한국에서 일제 수도 도쿄의 국내외천도에 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본 국내 천도 연구, 일제의 조선 및 만주 침략 연구의 일부 내용으로만 다루어지거나 원본 서적의 편역서가 출간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한반도(韓半島)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에 한정하여 당시 제기된 도쿄의 국내외천도론들을 개관하고, 그의 함의(含意)를 개진하여, 차후 이에 관한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 한반도 일제강점기 도쿄의 국내외천도론 개관

한반도 일제강점기 일제 수도 도쿄의 국내외천도론에 관한 자료들로 본 발표자가 최근까지 확인한 것을 정리한 것이 <표 1>인데, 이를 바탕으로 일제 수도 도쿄의 국내외천도론을 '국내천도론'과 '국외천도론'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어서 '종합적 개관'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천도론

한반도 일제강점기에 일제 수도 도쿄의 국내천도론은 장야현 송분시(長野縣 松本市), 송대(松代), 강산현 읍구군(岡山縣 邑久郡) 및 북강현 팔녀군(福岡縣 八女郡)으로의 천도론 등이 확인되는데, 이들 중 장야현 송분시와 송대로의 천도론은 실제적으로는 태평양전쟁(太平

洋戰爭, 1941~1945) 말기 본토에서의 결전에 대비하여 황거(皇居) 등 일부 수도기능(首都機能)만 임시로 이전하는 '몽진(蒙塵)'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국외천도론

한반도 일제강점기에 일제 수도 도쿄의 국외천도론은 조선으로의 천도론이 대부분인데, 경성천도론(京城遷都論)과 평양천도론(平壤遷都論)이 주류를 이루고, 기타 특이한 형태의 부여천도론(扶餘遷都論)이 있다.

(1) 경성천도론

경성천도론의 경우 難波淸人(난바 키요토, 1929), 不明(일제의 특정당국?, 1943) 1~3, 今村均(이마무라 히도시, 1923~1945 추정), 豊川善曄(도요카와 겐요, 1934) 등이 제기하고 있다.

難波淸人(1929)은 “제도를 경성으로 옮겨라(帝都お京城に遷せ)”라는 논문에서 경성천도론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

:

“일본이 불원간 겪게 될 사회문제로서 쌀 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식민지 조선으로부터 쌀을 들여와야 하는데, 가격이 오르거나 출곡(出穀)이 봉쇄될 것에 대비해서 조선의 농촌을 동경(東京) 이상으로 향상시켜서 조선의 산업을 개발하는 계기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궁국적으로는 제도(帝都) 도쿄를 '경성'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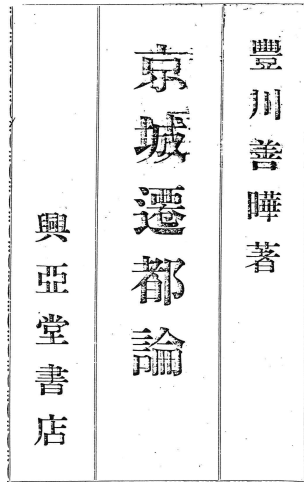
요컨대, 難波淸人(1929)에 의하면, 조선 농촌을 개발하여 일본의 쌀 부족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조선의 산업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쿄를 경성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불명(1943) 1~3은 경성을 구체적으로 '경성부(京城府) 주변지구'로 지목하면서 경성부 주변지구가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불명(1943) 2의 경우 자료 인용자 김의원(金儀遠)(1984)은 경성부 주변지구가 지금의 '김포지구(金浦地區)와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용인(龍仁)에 이르는 지역'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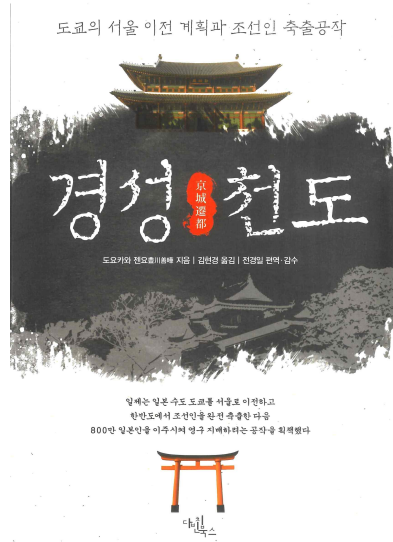
今村均(1923~1945?)은 구체적으로 '경성 남방(南方)의 유산(流山)'을 최적지로 지목하고 있는데, 자료 인용자 김의원은 '유산'을 '용산(龍山)'으로 추정하고 있다.

豊川善曄(1934)은 「京城遷都論」이란 저술을 통해서 경성천도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京城遷都論」은 분량이 230여 쪽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내용은 철저히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대동아공영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경성천도와 한만경제침탈(韓滿經濟侵奪)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심지어 「京城遷都論」은 도쿄의 경성천도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에서 조선인을 만주로 완전히 축출하고 800만 일본인을 한반도로 이주시켜야 하는데, 일본인의 조선, 만주 이주는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1500~1600여년 전 시행되었던 부여족(夫餘族)의 남하사(南下史)를 거꾸로 실행하는 것, 즉 당시 일본으로 귀화했던 사람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京城遷都論」(1934)의 주요 내용은 '극동점거론'(제2장), '경성천도론'(제3장) 및 '잘못된 대동경도제 문제(誤れる大東京都制問題)'(제4장)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들의 대부분이 논리적 비약이 심하고 내용간에 좌충우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興亞叢書 第壹卷



<그림 1> 「京城遷都論」(1934)의 영인본'(좌) 및 '번역본 「경성천도」(2012)'의 표지(우)

출처: (좌)豊川善曄, 1934. (우)도요카와 겐요 지음, 김현경 옮김, 전경일 편역·감수, 2012.

주: (좌)「京城遷都論」(1934)은 1989년에 경인문화사(京仁文化社)가 「한국지리풍속지총서」(韓國地理風俗誌叢書)의 제36권으로 영인해서 출간한 바 있다. 豊川善曄은 「京城遷都論」(1934) 이외에 「太平洋論」, 「農民え日本史」, 「極東城お護る」, 「極東社會發達史」 등도 저술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일제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옹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경성천도」(2012)는 국내에서 김현경이 옮기고, 전경일이 편역·감수해서 다빈치북스에서 간행한 것이다.

(2) 평양천도론

평양천도론의 경우 '군국주의자들(1920년대)'과 '稻葉(1920~1930년대?)'이 제기하고 있다.

'군국주의자들(1920년대)'이 제기한 평양천도론의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문정창, 1969, 391-400):

1925년 9월 '일본국 헌정회 특별분과위원회'는 인구문제대책으로써 "일본인 1천만인을 조선에 이주시키고, 대신 조선인을 그만큼 만주(滿洲)에 보낸다"는 강령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에는 세 가지의 의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 조선인은 북해도 아이누처럼 멸망시키면 족하다는 그 멸족정책(滅族政策)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이고, 둘째는 조선인 모두를 만주땅에 쫓아내어 조선인들이 만주를 개척하며 만주땅에서 각종의 문제를 일으키게 하므로써 뒤따르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경제적·정치적·군사적으로 만주를 탈취·강점하자는 것이고, 셋째는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 후 연달아 일어나는 여진(餘塵)과 관서진재(關西震災) 및 17세기 이래 200년간에 태풍·해일·지진 등을 76회나 겪은 역사를 가진 일본국의 국토에 극도의 불안을 느낀 군국주의자 중 일부인들이 평양천도론을 내세우는 등 '평양'을 수도(首都)로 한 조선·만주·일본을 일본제국(日本帝國)의 판도(版圖)로 하자는 의도의 발로이다.

요컨대, 1925년 9월 일본국 헌정회 특별분과위원회의 인구문제대책을 압축하면, "조선인들을 만주땅으로 축출하여 멸망시키고 일본인 1천만 인을 조선에 이주시켜서 조선·만주·일본을 아우르는 일본제국의 수도를 평양으로 정한다"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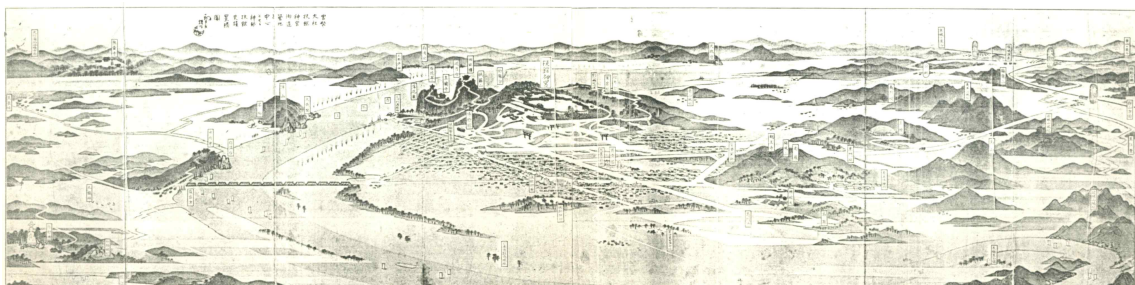
문정창(文定昌)은 자신의 저술 「군국 일본 조선강점 36년사: 중권」(1969, 391-400)의 '일본인 천지(天地)로 화(化)해서 들어가는 삼천리 강토: 일본인 10,000천명의 조선내 이식계획(移植計劃)'에서 위와 같은 1925년 9월 일본국 헌정회 특별분과위원회의 인구문제대책을 소개하면서 "1920년대에 조선총독부 일본인 관리 및 조선내 일본인 식자(識者)들 간에 평양천도론이 왕성했다"라고 주(註)로 부기(附記)하고 있다.

豊川善曄(1934)은 「京城遷都論」의 '경성천도론'(제3장) 중 '극동경략(極東經略)의 천왕산(天王山)'(제4절)(95-104)에서 稻葉(1920~1930년대?)이 "제도(帝都)로서 평양의 5가지 적합성을 제시하면서 경성은 지리적으로 인습(因習)의 땅이어서 조선총독부의 경성 입지도 부적절하다"라고 한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稻葉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만일 조선으로 천도한다면, 경성보다 평양이 좋다. 아니, 지리적으로는 극동에서 '평양'만한 곳이 없다. 첫째로 지세가 적을 방어하기에 적합하며 웅장하다. 둘째로 원산(元山), 진남포(鎭南浦)가 있어 반도의 동·서해안으로 가기 편하다. 셋째로 대동강(大同江)은 조금만 준설하면, 성벽 밖까지 증기선을 들일 수 있다. 넷째로 철과 석탄 등의 산지가 부근에 있어 공업적 요소가 갖추어져 있다. 다섯째로 주민들의 기질(氣質)이 여진(女眞) 계열로 날래고 단정한 점 등 '경성'과 비교할 때 우수하다. 따라서, 수도는 '평양'이어야 한다. 경성은 인습의 땅이므로 여기에 조선총독부를 두어서는 조선경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3) 부여천도론

부여천도론의 경우 부여지역의 구전(口傳)으로 1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성천도론이나 평양천도론과 달리 부여신도(扶餘神都)가 완성되면, 수도 도교의 부여로의 천도를 추가로 실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즉, 부여신도 건설이 완료되면, 도교의 부여천도를 단행하여 부여를 일본제국과 대동아공영권의 수도(首都) 및 신도(神都)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부여신도 건설은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1939~1942년간에 이루어졌는데, 도시기반 공사는 거의 마치고, 부여신도의 핵심으로서 부여신궁(扶餘神宮)은 기초공사 초입단계에서 중단되었다. 부여신궁은 관폐대사(官弊大社)로 조선의 전체 신사 1, 141개를 대표하고, 조선의 식민통치는 물론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정신적 기지(情神的 基地)로 구축하고자 했다(최원희, 2020, 31-36).



<그림 2> 부여신도 전경

출처: 최창락, 1989, 27.

주: 그림 가운데에 부소산록의 '부여신궁'이 보이고, 그 아래에 부여읍 시가지가 직교방사형으로 조성되어 있고, 시가지를 금강(백마강)이 둘러싸고 있다. 금강 너머로 산지·하천·평양이 전개되고 있다.

<표 1> 한반도 일제강점기 도쿄의 국내외천도론(2-1)

주창자(주창시기, 자료명)	천도대상지	주창내역	천도론 내역
	참고문헌		
불명(1944, 松本皇居移轉計劃)	日本 長野縣 松本市	황거(皇居) 이전	일본 국내 몽진(蒙塵)
	김의원, 1984, “대일본제국 수도의 서울 이전 구상,” 국토이력서, 매경신서 1.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41.		
불명(1944.11., 松代遷都計劃)	일본 松代	어전(御殿), 황거, 현소(賢所), 학습원(學習院), 참모본부(參謀本部), 정부각성(政府各省), 군사령부(軍司令部)를 이전	일본 국내몽진
	김의원, 1996b, “본토결전과 마쓰시로 천도계획,” 산넘고 강건너, 서울: 경인문화사, 216-217.		
불명(1943, 中央計劃素案·) 1	일본 岡山縣 邑久郡, 福岡縣 八女郡, 조선 京畿道 京城府	천도대상지로 일본 국내 2곳(일본 岡山縣 邑久郡 중심지구, 福岡縣 八女郡 중심지구)과 조선 1곳(京畿道 京城府 주변지구)을 제시, 京城府 주변지구가 어딘지는 미제시	邑久遷都論 八女遷都論 경성천도론
	김의원, 1983, “경성을 일제 수도 이전 후보지로,” 한국국토개발사연구, 제3판, 서울: 대학도서, 705-709.		
불명(1943, 中央計劃素案) 2	일본 岡山縣 邑久郡, 福岡縣 八女郡, 조선 京畿道 京城府	천도대상지로 일본 국내 2곳(일본 岡山縣 邑久郡 중심지구, 福岡縣 八女郡 중심지구)과 조선 1곳(京畿道 京城府 주변지구)을 제시하고, 3곳 중 ‘조선 京畿道 京城府 주변지구’를 가장 선호(그들의 마음은 경성으로 굳혀 있었다.), / 김의원은 현재 남아있는 조선 총독부 문서 등을 취합해 본 결과, 京城府 주변지구를 김포지구(金浦地區)와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용인(龍仁)에 이르는 지역으로 추정	邑久遷都論 八女遷都論 경성천도론
	김의원, 1984, “대일본제국 수도의 서울 이전 구상,” 국토이력서, 매경신서 1.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39-242.		
불명(1943, 中央計劃素案) 3	일본 岡山縣 邑久郡, 福岡縣 八女郡, 조선 京畿道 京城府	천도대상지로 일본 국내 2곳(일본 岡山縣 邑久郡 중심지구, 福岡縣 八女郡 중심지구)과 조선 1곳(京畿道 京城府 주변지구)을 제시하고, 3곳 중 조선 京畿道 京城府 주변지구를 일본국 수도 이전 후보지로 계획	邑久遷都論 八女遷都論 경성천도론
	김의원, 1996b, “일본의 수도를 서울 남방 유산(流山)에,” 산넘고 강건너, 서울: 경인문화사, 215-216.		

* 표에서 동일한 하나의 천도론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 출처별로 모두 구분하여 기입하였다.

<표 1> 한반도 일제강점기 도쿄의 국내외 천도론(2-2)

주창자(주창시기, 주창자료명)	천도대상지	주창내역	천도론 내역
	참고문헌		
難波 清人 (1929, “帝都お京城にせ遷”)	朝鮮 京城	조선 농촌을 개발하여 조선에서 쌀을 수입하기 위하여	京城遷都論
	難波清人, 1929, “帝都お京城に遷せ,” 朝鮮統治問題論文集, 1, 京城: 朝鮮通信社, 26-27.		
豊川 善曄, (1934, 「京城遷都論」)	조선 경성	조선, 대만, 만주를 중심으로 한 극동점거(極東占據)를 통해 대평양을 지배하고, 대동아공영권 운영	경성천도론
	豊川善曄, 1934, 京城遷都論, 興亞新書, 第一卷, 京城: 興亞堂書店; 김의원, 1984, “대일본제국 수도의 서울 이전 구상,” 국토이력서, 매경신서 1.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39-242.		
今村均(1923. 9. 관동대지진 이후~해방 직전, 불명)	조선 경성	도쿄는 지진과 방공대책(防空對策) 상 수도로서 부적합하고, 일본인의 대륙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 경성 남방(南方)의 유산(流山)을 수도로서 최적으로 간주/ 김의원은 ‘유산’을 ‘용산(龍山)’으로 추정	경성천도론
	김의원, 1996b, “일본의 수도를 서울 남방 유산에,” 산넘고 강건너, 서울: 경인문화사, 215-216.		
군국주의자들(1920년대, 불명)	조선 평양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일본 국토에 극도의 불안을 느낀 군국주의자(軍國主義者) 중 일부인들이 평양을 수도로 한 조선·만주·일본을 일본제국(日本帝國)의 판도(版圖)로 구축한다는 것/ 문정창은 “1920년대에 조선총독부 일본인 관리 및 조선내 일본인 식자들 간에 평양천도론이 왕성했다”고 주(註)를 부기(附記)	平壤遷都論
	문정창, 1969, “일본인의 천지(天地)로 화(化)해서 들어가는 삼천리 강토: 일본인 10,000천명의 조선내 이식계획(移植計劃),” 군국 일본 조선강점 36년사, 중권, 서울: 백문당, 391-400.		
稻 葉 (君山)(1920~1930년대 추정, 불명)	조선 평양	제도(帝都)로서 평양의 5가지 적합성을 제시, 지리적으로 경성은 인습(因習)의 땅이어서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경성 입지도 부적절	평양천도론
	豊川善曄, 1934, “極東經略の天王山,” 京城遷都論, 興亞新書, 第一卷, 京城: 興亞堂書店, 95-104.		
부여지역(扶餘地域)의 구전(口傳)(1939~1942)	조선 부여	부여신도(扶餘神都) 건설이 완료되면, 도쿄의 부여천도(扶餘遷都)를 단행하여, 부여를 제국과 대동아공영권의 수도(首都) 및 신도(神都)로 삼으려고	扶餘遷都論
	최원희, 2020,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연구: 부여신도 건설을 사례로,” 2020 한국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31-36.		

3) 종합적 개관

“조선으로의 천도론’은 중앙계획소안(中央計劃素案, 1943년 10월) 이전에도 ‘수없이’ 거론된 바 있다”(김의원, 1984, 239)는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 일제강점기에 일제 수도 도쿄의 ‘조선으로의 천도론’은 상당히 흔한 일로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경성천도론은 ‘수없이’ 논의되고 주장되었다”(김의원, 1983, 706)는 자료에 의하면, 일제강점기에 일제 수도 도쿄의 경성으로의 천도에 관한 ‘경성천도론’ 역시 흔한 일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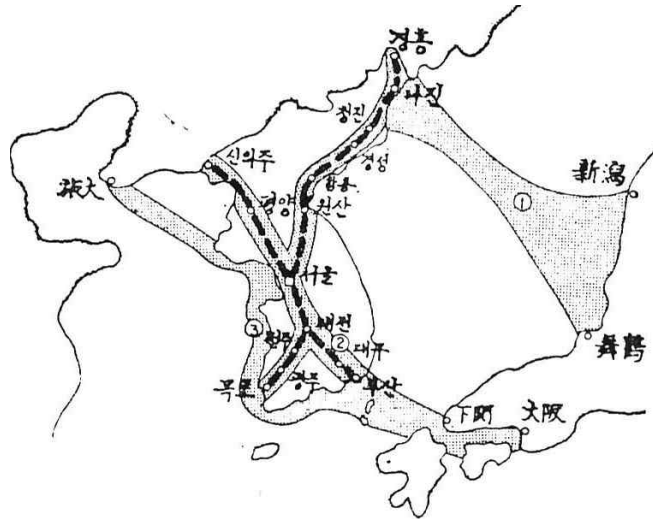
또한, 경성천도론은 평양천도론에 비해서 출처가 더 명확하고, 내용량이 풍부한 자료가 더 많아서 한반도 일제강점기에 경성천도론이 평양천도론에 비해서 더 보편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1920년대에 조선총독부 관리 및 조선 내 일본인 식자들 간에 평양천도론이 왕성

하였다“(문정창, 1969, 394) 및 “1920년대 한때 평양천도론이 총독부 내에 퍼진 적이 있다“(김의원, 1984, 239)는 내용을 근거로 하면, 일제강점기에 평양천도론도 경성천도론에 못지 않게 보편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인들이 일본의 수도를 일본 밖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천도하려고 한 사례는 한반도 일제강점기보다 훨씬 앞서 16세기에 있었는데, 豊臣秀吉(도요토미 히데요시, 1536~1598)의 북경천도론(北京遷都論)이 그것이다. 豊臣秀吉은 한 세기의 웅대한 책략을 휘두르며 대국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겨 일본어로 아시아를 통일하고자 하는 대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섬나라 일본을 대륙의 일본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웅대한 계획은 豊臣秀吉로부터 시작되었다(도요카와 겐요 지음, 김현경 옮김, 전경일 편역·감수, 2012, 130).

한편, 한반도 일제강점기 도쿄의 국내외천도론 중 특히 국외천도론의 전개는 대체로 일제의 대륙침략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본, 조선 및 만주를 아우르는 ‘교통망계획’을 수반했는데, 도쿄의 국외천도론의 주요 대상이 대부분 조선 경성이었기 때문에 일본, 조선 및 만주를 아우르는 교통망계획에서 교통망은 대체로 경성을 주요 매개로 하여 설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륙침략 차원의 교통망 계획은 일본과 조선 및 조선과 만주를 연결하는 해상 및 육상 루트를 설정하였고, 특히 한반도의 경우 경성을 중심으로 한 X자형 국토구조 내지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다(김의원, 1984, 251-254; 김의원, 1984, 239-242; 김의원, 1996a, 2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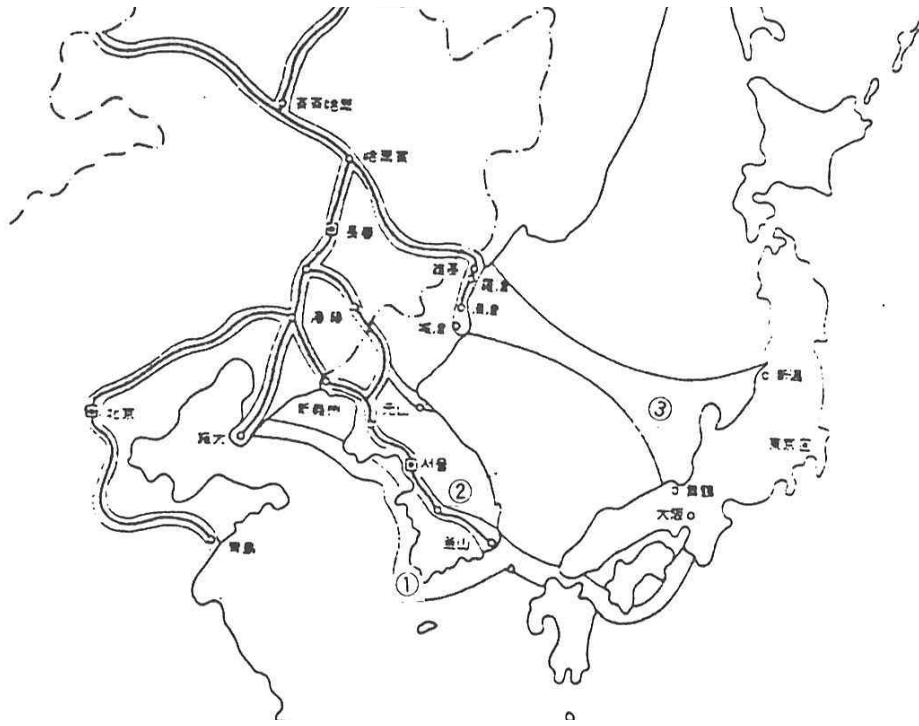


①北鮮루트 ②安奉(中央)루트 ③黃海루트

<그림 3> 일제의 대륙침략 루트와 한반도의 남북 X 자형 국토구조

출처: 김의원, 1984, 253.

주: 일제의 '대륙침략 루트'로 北鮮루트, 安奉(中央)루트 및 黃海루트가 설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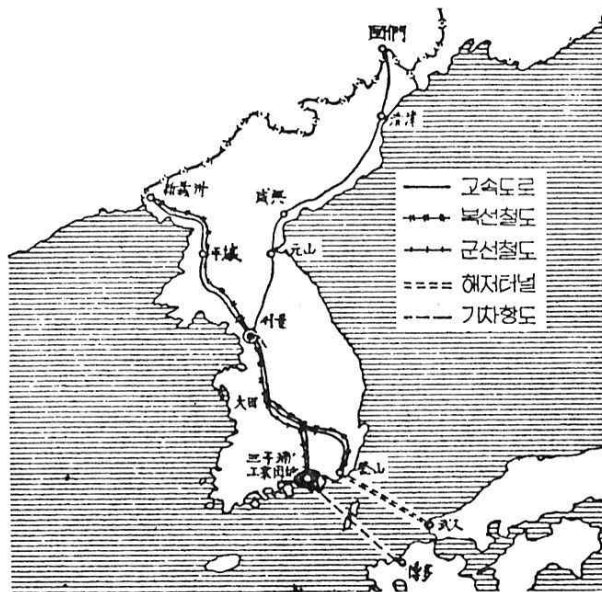


① 黃海루트 ② 安奉(中央)루트 ③ 北鮮루트

<그림 4> 일제의 대륙침략 루트

출처: 김의원, 1996a, 20.

주: 일제의 '대륙침략 루트'로 黃海루트, 安奉(中央)루트 및 北鮮루트가 설정되어 있다.



<그림 5> 수도 이전에 따른 교통망계획

출처: 김의원, 1984, 241.

주: 일제의 수도 도쿄의 경성(서울)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작성된 '일본과 한반도 간' 및 '한반도 내'의 교통망계획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일본과 한반도'('삼천포공업단지'와 '부산') 간의 해저터널 및 '경성과 도문(圖們) 간의 고속철도'가 눈에 띈다.

3. 요약, 합의 및 제언

1) 요약 및 합의

일제 수도 도쿄의 국외천도 시도는 16세기 豊臣秀吉의 북경천도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연원(淵源)이 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 일제강점기에 일제 수도 도쿄의 천도론과 관련하여 일본 내 후보지로는 ‘長野峴松本’과 ‘松代’가 계획된 바 있으나, 이는 태평양전쟁기 본토결전에 대비한 몽진 형태였고, 최종적으로 실행되지도 않았다. 또한, 한반도 일제강점기에 도쿄의 국외지역으로의 천도와 관련하여 경성천도론과 평양천도론이 주로 거론되었는데, 거론수로는 평양천도론보다는 경성천도론이 더 많이 거론되고 대체를 이룬 것으로 보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평양천도론도 왕성하게 거론된 바 있다. 이외에, 일제 말기에 추진되다가 중단된 부여신도에 도쿄의 천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부여천도론도 부여지역에서 구전되고 있다.

부여천도론은 구전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신도(神都)로서의 부여에 수도를 이전하여 ‘신도(神道)의 중심지 신도’와 ‘정치적 중심지 수도’가 ‘공존하는 도시’를 건설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부여천도가 시도되지 않았다면, 경성천도 또는 평양천도는 부여신도 건설과 이원적으로 추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제국의 수도 경성 또는 평양과 신도 부여는 일제의 식민지 조선 통치는 물론 대동아공영권 운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도시들로 작동했을 것으로 본다.

일제 수도 도쿄의 국외천도론 중 특히 경성천도론은 일제의 대륙침략계획 또는 식민지 조선 경영책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정학적 및 군사적 목적 이외에 일본인의 만주와 한반도로의 이민, 한반도에서의 쌀의 확보에도 그 목적이 있었다.

본 발표자는 1990년대 초반 영인본으로 된 「京城遷都論」(豊川善擘, 1934)을 최초로 접한 당시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수도 도쿄를 경성으로 옮겨야 한다는 ‘경성천도론’ 주장 자체가 황당했지만, 만약 그대로 수용되어 실행되었다면 일제의 식민지 조선 통치, 더 나아가서 대동아공영권 운영의 양상이 크게 달리 전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2) 제언

최근까지 본 발표자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지리학에서 한반도 일제강점기 일제 수도 도쿄의 국외천도론의 2대 주류인 경성천도론과 평양천도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연구자는 최창조 교수(崔昌祚, 1950~2024: 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가 유일한데, 그는 자신의 저서 「최창조의 새로운 풍수이론」(2009)의 한 소절 ‘현대 풍수의 적용사례: 풍수로 본 청와대 비극과 천도불가론’ 중(173-174)에서 「한국국토개발사연구」(김의원, 1982)의 내용을 인용하여 과거 일제(日帝)의 수도이전계획 중 6가지 조건을 소개하면서 ‘1920년대의 평양천도론’과 ‘1943년의 경성천도론’에 관해서 짧지만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제는 이미 1920년에 일본, 조선, 만주를 통괄할 수 있는 ‘평양천도론’을 염두에 두어 본 적이 있고, 1943년에는 ‘서울(경성)’을 유력한 후보지로 한 천도를 꿈꾸기도 했다.”

그간, 한국에서 한반도 일제강점기 도쿄의 국내외천도에 관한 연구는 한국사, 도시계획사, 사회문화사 등의 분야에서 특정 연구의 일부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있으나, 지리학 분야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최창조의 짧은 기술 이외에는 거의 찾기가 어렵다. 차후, 한

반도 일제강점기 도쿄의 국외천도론으로서 경성천도론, 평양천도론 등의 출현 배경, 주요 내용, 경과 등에 관하여 지리학에서의 체계적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운태, 1986,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통치, 서울: 박영사.
김의원, 1982, 한국국토개발사연구, 서울: 대학도서.
김의원, 1983, 한국국토개발사연구, 제3판, 서울: 대학도서.
김의원, 1984, 국토이력서, 매경신서 1,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김의원, 1996a, 국토백상, 서울: 경인문화사.
김의원, 1996b, 산넘고 강건너, 서울: 경인문화사.
도요카와 겐요(豊川善暉) 지음, 김현경 옮김, 전경일 편역·감수, 2012, 경성천도, 서울: 다빈치북스.
문정창, 1969, 군국 일본 조선강점 36년사, 중권, 서울: 백문당.
손정목, 1987, 일제하 부여신궁 조영과 소위 부여신도 건설, 한국학보, 49, 겨울호, 서울: 일지사, 123-156.
최원희, 2020,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연구: 부여신도 건설을 사례로,” 2020 한국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31-36.
최창락, 1989, 부여의 역사지리적 고찰,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창조, 2009, 최창조의 새로운 풍수이론, 서울: 민음사.
金達壽, 1986, 朝鮮, 岩波新書, D 61, 東京: 岩波書店.
難波清人, 1929, “帝都お京城に遷せ,” 朝鮮統治問題論文集, 1, 京城: 朝鮮通信社, 26-27.
山邊健太郎, 1971, 日本統治下の朝鮮, 岩波新書, D 129, 東京: 岩波書店.
豊川善暉, 1934, 京城遷都論, 興亞新書, 第一卷, 京城: 興亞堂書店.
ジャーク・プズーニマサビュオー, 1985, 新朝鮮事情, 문고クセジュ 669, 東京: 白水社.
(Jacques Pezeu-Massabuau, 1820, LA CORÉE, Presses Universita de France.)

박정희 정권 말기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고찰: '입지선정' 과 '도시기본구조' 를 중심으로

최원희*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주요어 : 박정희 정권, 행정수도 건설, 백지계획, 입지선정, 도시기본구조

1. 서론

2002년 12월 19일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공약한 당시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1946~2009)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식화된 '신행정수도(新行政首都) 건설'(최원희, 2007, 35)은 이후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결국 좌초되지 않고 행정중심복합도시(行政中心複合都市)로 꾸준히 추진되어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의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앞서 1970년대 후반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朴正熙, 1917~1979)에 의해서 '임시행정수도(臨時行政首都) 건설'이 추진된 바 있다. 박정희는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문제'와 '북한의 공격에 취약한 수도 서울의 방위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하에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기획단, 1979, 21-23; 김병린 외 편, 12-19).

박정희의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은 1977년 3월부터는 기존의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重化學工業推進委員會)에 의하여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이하, '백지계획'이라 칭함)으로 공식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해서 1979년 12월에는 백지계획의 종합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예정으로(기획단, 1979, 앞부록; 김병린 외 편, 2005, 38-39; 최상철 편, 2004, 17)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피살(被殺)로 1980년 8월 백지계획 추진 주체이던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결국 실패로 귀결된 바 있다.

박정희가 추진하던 백지계획은 해방 이후 수도 서울의 과밀인구 및 안보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수도 건설을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고, 1980년대 이후 이루어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선행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백지계획에 관한 연구는 지리학 내외에서 어느 정도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나, 이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현재까지 매우 미미하여 논문 2건 이외에 교양 수준의 서적, 시사잡지 기사, 신문 기사, 방송 다큐멘터리 등이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이, 백지계획의 적지 않은 의의에 비해서 학술적 연구가 미미한 것은 백지계획에 관한 직접적 자료인 각종 보고서들이 "기획단 발간 보고서에 한정해도 45권으로(김병린 외 편, 2005, 354-356)" 양적으로 방대한데다가 "2003년 2월경까지 국가기밀로 취급되어(연기군 지편찬위원회, 2008 14)" 접근이 어려웠고, 백지계획 보고서들을 소장하고 있는 주요 도서관 등에서 보고서들의 희소성, 노후문제 등을 감안하여 보존자료로 지정하면서 대출 및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백지계획에 관한 논문 2건 중 1건은 지리학 분야에 해당되는 것(김인, 1979)이나, 그 내용에 백지계획의 핵심인 구체적 입지선정 및 도시기본구조에 관한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리학 분야에서 백지계획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시급한 형편이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백지계획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내역인 추진경위·수립체계·작업기구에 관해 개관하고, 이어서 지리학적 관점에서 입지선정 및 도시기본구조에 관해서 개관하여 추후 이에 관한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백지계획 연구를 위한 자료

백지계획 연구를 위한 자료로는 보고서, 논문, 일반자료(서적, 잡지, 방송 다큐멘터리, 신문기사), 마이크로 필름 카톤 등이 있다. 백지계획 자료들 중 보고서는 전부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산하의 기획단(企劃團)이 발간한 것으로 '1차적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데, 아직 정확한 발간내역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김병린 외 편(2005, 354-356)에 의하면 최대 45권 정도로 추정된다. 이러한 백지계획에 관한 여러 보고서들 가운데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기획단, 1979)은 최종의 총괄적 보고서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보고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 몇 곳에만 소장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그 내용이 총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량은 총 461쪽에 이른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제2장 입지의 선정' 및 '제3장 새 도시의 기본구조'이다.

이기석(李琦錫)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는 한국 지리학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당시 백지계획 연구에 자문진 및 연구진으로 참여한 바 있어 '백지계획 보고서 8권'과 '마이크로 필름 카톤 3박스'를 소장하고 있다. 마이크로 필름 카톤 3박스에는 백지계획 주요 보고서 13권과 신문스크랩 1권이 저장되어 있다. 이기석 명예교수가 소장한 백지계획 자료들은 매우 희소한 자료인데, 특히 '마이크로 필름 카톤 3박스'는 백지계획 추진 연구의 전모를 일거에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그림 1> 백지계획의 간행물 및 마이크로필름 파일 카톤

출처: 이기석 소장본(좌),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1979, 앞표지(중), 이기석 소장본(우)

주: 보고서와 마이크로필름 파일 카톤(좌·우)은 현재는 본 발표자가 보관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중)의 도서 고유번호는 '동양서 101 1079029'이다. 마이크로필름 파일 카톤(우)의 제작시기는 1979년 이후로 추정된다.

백지계획에 관한 주요한 학술적 연구 논문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단 2건이 있는데, 지리학 분야 1건과 건축학 분야 1건이 그것들이다. 지리학 분야 1건은 김인(1979)의 논문(“신행정수도의 이전과 입지문제”)이고, 건축학 분야의 1건은 엄운진·정인하(2021)의 논문(“1970년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에 관한 연구”)이다.

김인(1979)의 논문은 ‘천도의 문제=수도 서울의 인구 문제’라는 전제하에 신행정수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하면서 우리나라의 도시화 추세와 도시체계의 변천과정에 입각해서 향후 수도 서울의 인구팽창 소지(素地)를 고찰하고, 천도시 유의해야 할 신행정수도의 입지선정문제와 그 입지효과에 관해 논의하고 있고, 백지계획에서 제시된 행정수도의 입지선정과 도시기본구조에 관해서는 거의 기술하지 않고 있다.

엄운진·정인하(2021)의 논문은 백지계획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초점을 맞춰 분석한 결과, “백지계획에 참여했던 건축가와 계획가들, 그리고 테크노크라트들 간에는 견해차가 존재했고, 백지계획은 도시계획상의 한국성(韓國性, Koanness)을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 나섰고, 그리고 백지계획은 다양한 방식으로 1989년대 이후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3. 백지계획의 추진경위, 수립체계 및 작업기구

1) 백지계획의 추진경위

현재까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박정희의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이 최초로 드러난 것은 박정희가 1975년 8월 진해(鎭海)의 대통령 하계휴양지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환담하면서 보안유지를 전제로 밝히면서이다. 이후, 박정희는 1975~1976년간 당시 국무총리 김종필(金鍾泌, 1926~2018), 건설부장관 김재규(金載圭, 1926~1980), 서울대학교 교수 주종원(朱種元, 1932~)·최상철(崔相哲, 1940~) 등에게 임시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여러 조치들을 은밀하게 지시했는데, 후보지 물색, 후보지의 지질 조사분석, 현지답사 등이 그것들이다(연기군 지편찬위원회, 2008, 12).

1976년 6월 22일에 이르러서는 전 국무총리 김종필이 박정희에게 40쪽 분량의 보고서인 이른바 <NC>가 제출되었고, 1976년 7~9월에는 건설부장관 김재규가 임시행정수도 건설계획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는데, 이 모두가 여전히 비공개로 처리되었다. 1977년 2월 대통령의 서울시 연두순사에서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이 비로소 최초로 공식 발표되었고, 1977년 내내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로 업무 이관,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수립 지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에 실무기획단 구성, 건설부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안(도집 [圖集]) 보고 등이 이루어졌다(기획단, 1979, 앞부록).

1978년에 들어서는 임시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종합연구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부설 지역개발연구소 발족이 이뤄졌고, 1979년 5월에는 대통령에게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종합계획서가 제출되었다. 1980년에 들어서는 행정수도 건설의 사회경제적 타당성 연구와 도시기본구조의 대안(기존도시의 확장안) 연구가 이뤄졌고, 같은해 8월에는 행정수도 건설계획 업무가 건설부에 이관되면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폐지되어, 백지계획 추진은 사실상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기획단, 1979, 앞부록; 최상철 편, 2004, 17; 김병린 외 편, 2005, 38).

백지계획의 추진은 공식적으로는 1977년 2월~ 1980년 8월 기간 동안 기본방향 설정(1977년 24개 과제 155명 참여), 도시기본구조 성안(1978년 27개 과제 129명 참여), 부분별계

획 및 종합계획 수립(1979년 19과제 81명 참여), 대안(기존도시 확장안) 연구 및 타당성 검토(1980년 2개 과제 81명 참여) 등의 순서로 총 72개 과제에 걸쳐 총 472명이 참여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과제 수행에 투입된 예산은 총 11억 3백만 원이었다(김병린 외 편, 2005, 39-40.).

2) 백지계획의 수립체계

백지계획의 수립체계는 전체적으로는 행정수도 건설의 이념과 목표 및 계획지표하에 입지선정 조사에 기반한 도시기본구조계획' 및 '건설계획'의 두 부문으로 구성되고, 세부적으로 '도시기본구조계획'은 토지이용·교통계획, 중심지구계획, 거주지배치·주택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공원녹지조경계획으로, 그리고 '건설계획'은 건설계획, 이전계획, 재원조달계획, 현지주민대책, 도시운영관리제도, 관련시책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기획단, 1979, 앞부록).

3) 백지계획의 작업기구

백지계획의 작업기구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단장 외 10명)과 그 산하의 '부문별연구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부문별연구작업반은 1977년의 경우 학계(14개반 55명), 업계(11개반 70명) 및 전문가(30명)로, 1980년의 경우 학회·연구기관(7개소 83명), 대학연구기관(4개소 26명) 및 기술용역업체(4개소 20명)로 각각 구성되어 있었다. 이외에, 기획단과 작업반 사이에 '자문기관'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종합계획위원회(18명)와 10개 분과위원회(58명)로 구성되어 있었다(기획단, 1979, 앞부록).

백지계획의 작업기구로서 최상부의 '기획단'은 1977년 3월 26일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내에 구성된 '실무기획단'을 의미하는데(기획단, 1979, 앞부록), 백지계획을 얼핏 보기에 백지계획과 무관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맡게 된 것은 백지계획 추진의 보안유지를 위해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1973년 당시 대통령 박정희가 중화학공업 추진계획을 시작하면서 설치한 기왕의 기구로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활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연기군지 추진위원회, 2008, 12). 당시 기획단의 단장은 청와대의 오원철(吳源哲) 경제2수석이 겸임했다(김병린 외 편, 2005, 20-21).

백지계획의 작업기구에 참여한 인사들 중 지리학 분야에서는 이기석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가 유일하게 참여했는데, 그는 당시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이기석 명예교수는 백지계획에 2가지 역할로 참여했는데, 하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자문단의 '도시계획 분야'에 참여했고, 다른 하나는 부문별 과업 중 사단법인 한양산업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도시문제와 대책' 과업에 참여했다.(김병린 외 편, 2005, 357~361).

4. 백지계획의 주요 내역

백지계획의 주요 내역은 '행정수도 건설의 전체계획과정' 통해서 개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핵심적 내역은 '행정수도의 입지선정과 도시기본구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1) 행정수도 건설의 전체계획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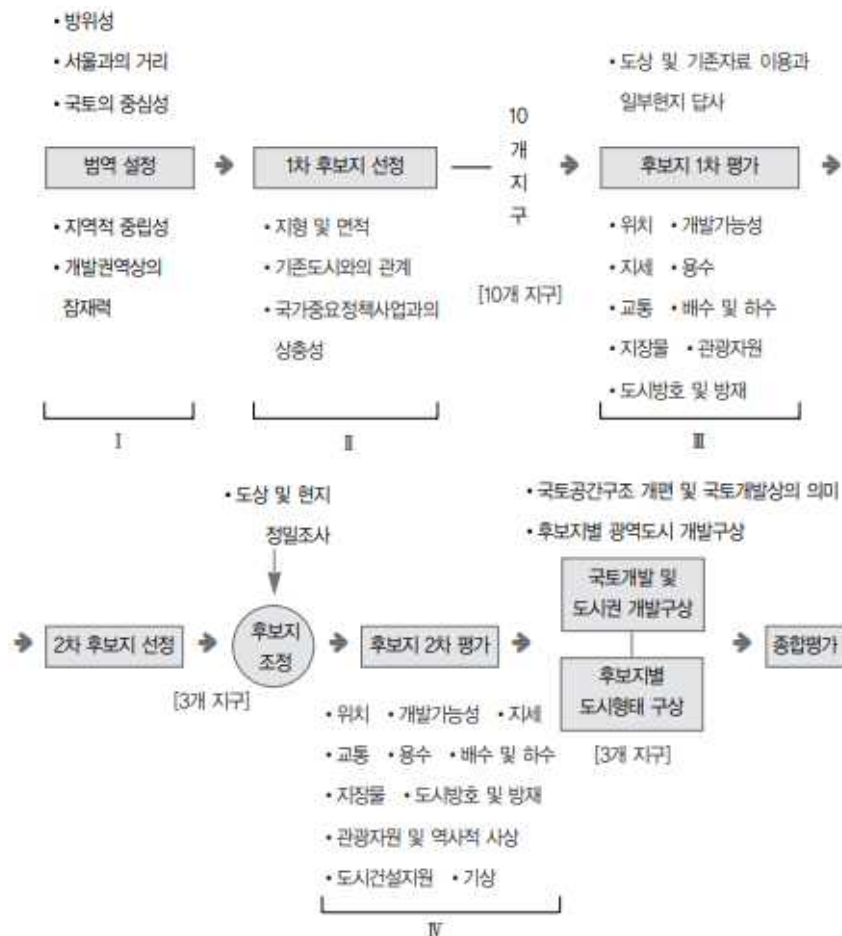
'행정수도 건설의 전체계획과정'은 준비, 계획, 건설, 이전 및 성숙의 총 5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의 세부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기획단, 1979, 앞부록; 김병린 외 편, 2005, 39): 준비 단계: 1977~1980, 백지계획 수립,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정/ 계획 단계: 1980~1981, 입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행정수도건설법(가칭) 등의 입안, 도시 설계 및 세부 실시설계/ 건설 단계: 1982~1986, 용지 매입, 도시기반시설 조성, 정부청사 및 주택 건설/ 이전 단계: 1987~1991, 이전 추진, 정부기관의 이전 완료/ 성숙 단계: 1992~1996, 생산환경시설 확충, 인구 50만 규모의 자족도시 형성

1979년 박정희의 피살로 인해 행정수도 건설의 전체계획과정 중 준비 단계만 이행되었다.

2) 행정수도의 입지선정

행정수도 입지선정은 범역 설정(5개 설정기준), 1차 후보지 선정(3개 선정기준, 10개 지구), 1차 후보지에 대한 후보지 1차 평가(9개 1차 평가기준), 1차 평가에서 부상된 2차 후보지 선정(3개 지구), 후보지 조정(도상 및 현지정밀조사), 후보지 2차 평가(11개 2차 평가기준), 2차 후보지 재선정(3개 지구), 종합평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김병린 외 편, 2005, 75: 기획단, 1979,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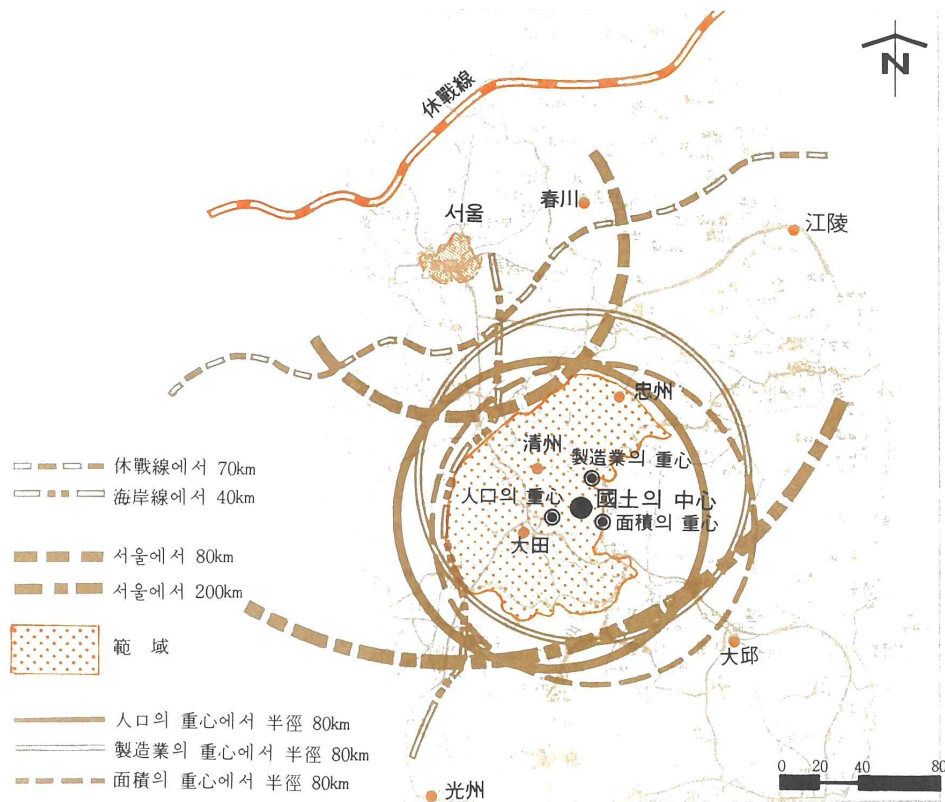
<그림 2> 행정수도 후보지 입지선정 과정

출처: 김병린 외 편, 2005, 75.

한편, 행정수도 입지선정 과정에서 「2000년대의 국토개발 구상」(기획단, 1979)을 주요 준거의 하나로 참조하였다. 「2000년대의 국토개발 구상」(기획단, 1979)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기획단, 1979) 작성의 근거가 된 주요 보고서이다. 「2000년대의 국토개발 구상」(기획단, 1979)의 '제Ⅱ장'의 제목이 '행정수도 건설'이다(기획단, 1979, 00-00).

(1) 범역 설정

방위성, 서울과의 거리, 국토의 중심성, 지역적 중립성 및 개발권역상의 잠재력 5가지를 범역 설정기준으로 하여 '행정수도 입지선정을 위한 범역도(範域圖)'를 작성했다(김병린 외 편, 2005, 75; 기획단, 1979, 45). 한편, 범역 설정기준은 '1976년 6월 10일 당시 대통령 박정희가 작성한 '신행정수도 건설에 고려사항'(최상철 편, 2004, 18.)에 주로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1차 후보지 10개 지구를 선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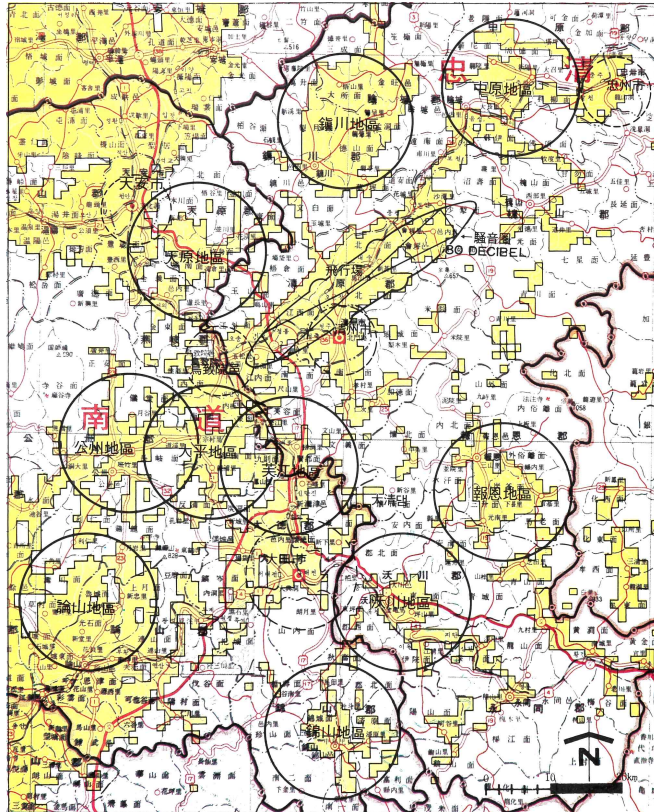


<그림 3> 행정수도 입지선정을 위한 범역도

출처: 기획단, 1979, 47.

(2) 1차 후보지 선정

범역도에 준거하여 설정된 '1차 후보지 선정기준'(3개)인 '지형 및 면적', '기존 도시와의 관계' 및 '국가 중요 정책사업과의 상충성'에 의거하여 행정수도 1차 후보지로 천원(天原), 진천(鎭川), 중원(中原), 공주(公州), 대평(大平), 부강(美江), 보은(報恩), 논산(論山), 옥천(沃川) 및 금산(錦山)의 10개 지구가 선정되었다(기획단, 1979, 45; 김병린 외 편, 2005, 75).



<그림 4> 행정수도 1차 후보지 위치도

출처: 기획단, 1979, 49.

주: 3개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10개 지구의 1차 후보지가 선정되었다.

(3) '1차 후보지' 대상으로 한 '후보지 1차 평가'에 의한 '2차 후보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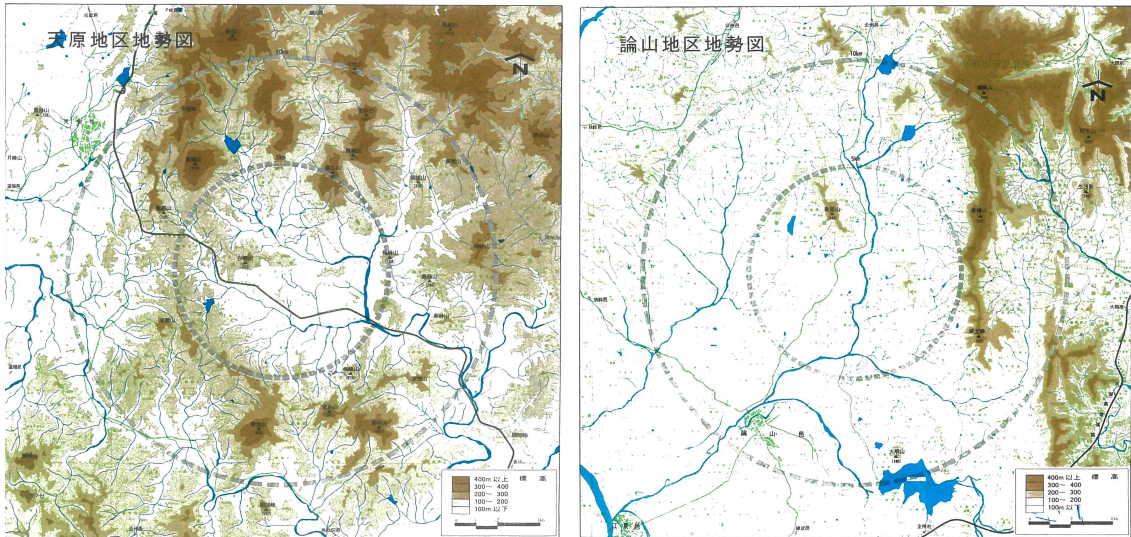
10개의 '1차 후보지'를 대상으로 '후보지 1차 평가기준' 9개에 의거하여 '후보지 1차 평가'를 실시한 결과, 천원, 대평 및 논산 3개 지구가 '2차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후보지 1차 평가기준' 9개는 위치, 개발가능성, 지세, 교통, 용수, 배수 및 하수, 지장물(地障物), 도시방호 및 방재, 관광자원 및 역사적 사상(事象)이다. '후보지 1차 평가기준' 9개는 총 30개 세부 평가 항목으로 상세화되어 있다(기획단, 1979, 45; 김병린 외 편, 2005, 75).

(4) 도상 및 현지 정밀 조사에 따른 '후보지 조정'

'논산지구'는 1차 후보지로 선정된 노성면 일대로부터 약 5km 정도 동쪽으로 중심점을 이동한 지역이 배산 및 경관적 측면에서 양호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고, 지형 및 면적을 충족시키고 있어 대상지구를 조정하였다. '대평지구'는 공주지구 및 부강지구와 관련시켜 본 결과, 부강지구는 재차 고려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공주지구와 대평지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후보지를 '장기지구(長岐地區)'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기획단, 1979, 58). 즉, 2차 후보지 천원, 대평 및 논산지구 3곳 중 대평지구를 공주지구와 연계시켜 두 지구의 장점만 취하여 새로운 '장기지구'를 설정하는 '후보지 조정'을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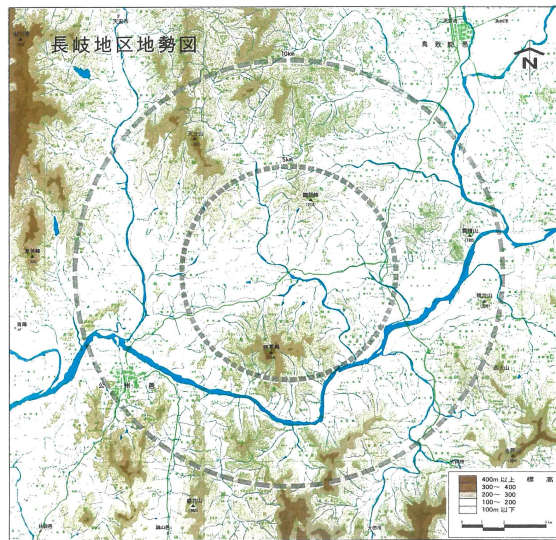
(5) 후보지 2차 평가에 의한 2차 후보지 재선정

후보지 1차 평가로 선정된 '2차 후보지'(3개 지구) 천원, 대평 및 논산지구를 대상으로 '후보지 조정'을 거쳐 '후보지 2차 평가'를 11개 2차 평가기준에 의거해 시행하여 2차 후보지 (3개 지구) 천원, 논산 및 장기지구가 재선정되었다. 후보지 2차 평가기준 11개는 '후보지 1차 평가기준' 9개에 '도시건설 지원'과 '기상'이 추가되어 총 11개로 구성되었다. 후보지 2차 평가기준 11개는 총 59개의 세부항목으로 상세화되어 있다(기획단, 1979, 45; 김병린 외 편, 75).



천원지구

논산지구



장기지구

<그림 5> '후보지 조정'에 따라 선정된 '2차 후보지' 3개 지구: 천원, 논산 및 장기지구

출처: 기획단, 1979, 59-61.

주: '장기지구'는 도시기본구조 작성을 위한 가상 후보지(가상입지)로도 사실상 적용되었다.

(6) 종합평가

천원, 장기 및 논산 3개 지구에 대한 '종합평가'에 의하면, 천원지구는 장기지구와 논산지구에 비하여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장기지구와 논산지구는 항목별 평가만으로 우열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항목별 평가와 더불어 '행정수도 건설의 이념'과 '국토개발' 등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기획단, 1989, 63).

요컨대, 천원, 장기 및 논산 3개 지구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천원지구는 탈락되고, 장기지구와 논산지구가 공동으로 선정되고, 추후 정책적인 결정에 의한 1개 최종 후보지 선정을 권장하는 상태로 종합평가가 마무리되었는데, 이는 최적 후보지 1개 지구를 선정하지 않은 특이한 양상이다.

3) 행정수도의 도시기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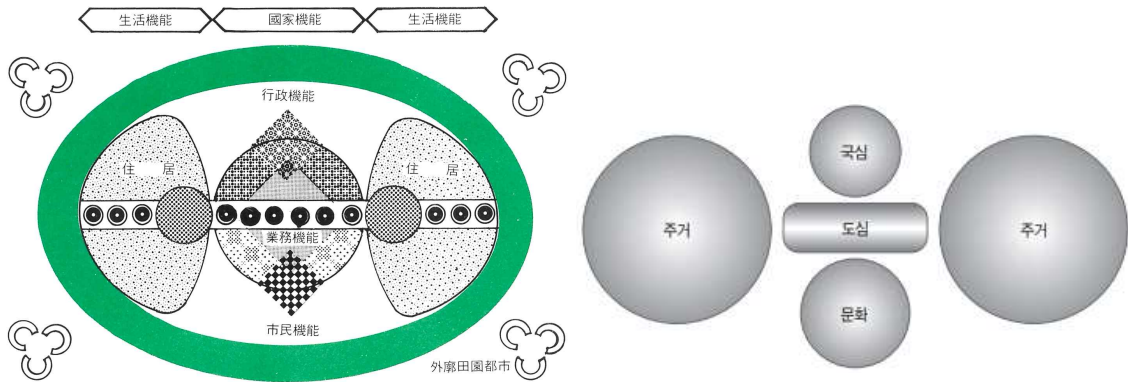
(1) 행정수도 도시 전체 개념도

행정수도의 도시기본구조 설정을 위해 도시기본형태를 개념도(概念圖)로 제시한 것이 '행정수도 도시 전체 개념도'인데, 이 개념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기획단, 1979, 74):

- 중앙에 행정·상업·업무지구를 갖는 중심지구와 그 주변에 주거지역을 갖는 '중심도시' 및 '외곽전원도시군(外廓田園都市群)'으로 형성한다. 중심도시는 50만 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외곽전원도시군에 장래 유입인구 50만 명을 더 수용토록 한다.
- 중심도시와 외곽전원도시군 주변에는 도시연담화(都市連擔化, conurbation)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두며, 중심도시 외곽에는 도시민을 위한 다목적순환녹지체계인 지역수림대(地域樹林帶)를 둔다.
- 중심지구는 중앙의 개활지(開豁地)에 위치하여 국심(國心)과 도심(都心)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중앙에는 전통적 개념에 따라 남북방향의 웅대한 중심축(中心軸)을 구축하고, 동서방향에 부축(副軸)을 두어 '十자형'의 중심축을 형성한다.
- 중심축 북단에 위치한 중앙청(中央廳)을 정점으로 입법부와 사법부를 정립(鼎立)케 하고, 중앙청 하단에 행정지구를 배치하고, 그 남측에 가구별(街區別)로 기능을 살린 업무·상업지구를 형성한다.
- 주거지역은 중심지구에서 동서방향의 선형(線型)으로 펼쳐지는 개활지에 근린지구 방식으로 정주공간을 형성하여 모든 생활편의시설이 자족적으로 해결되도록 한다.

또한, '행정수도 도시 전체 개념도'에 의거하여 '행정수도의 도시기본구조'를 설정하기에 앞서 '행정수도의 도시기본구조'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행정수도의 토지이용 유형별 도시패턴'을 작성하였다. '행정수도의 토지이용 유형별 도시패턴'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김병린 외 편, 2005, 11):

남북 방향보다 동서 방향으로 긴 지형·지세를 활용하기 위해 중앙의 중심기능(국심 및 도심)을 기준으로 양편에 주거기능을 펼쳐놓는 동심원 및 부채꼴의 도시패턴을 채택하였다. 지형·지세의 특징을 잘 활용하면, 토지이용 유형 간의 분리와 결합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림 6> 행정수도 도시 전체 개념도(좌) 및 토지이용 유형별 도시패턴(우)
출처: (좌)기획단, 1979, 74. (우)김병린 외 편, 2005, 111.

(2) 가상입지의 선정

행정도시 입지선정의 종합평가에서 후보지 조정을 거친 새로운 2차 평가 후보지인 천원, 논산 및 장기지구 중 1개 지구를 최종 최적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고, 장기 및 논산 지구 중 하나를 차후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시기본구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최적 후보지(최적 입지) 1개 지구가 선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행정수도의 경우도 백지계획 최종보고서(기획단, 1979, 72)에서 장기 및 논산 지구 중 상대적으로 지형·지세가 우세한 장기지구를 가상후보지(假想候補地, 가상입지 [假想立地])로 선정하여 행정수도의 도시기본구조 설정에 임하고 있다.

백지계획 최종보고서(기획단, 1979, 72)의 행정수도 가상후보지(가상입지) 선정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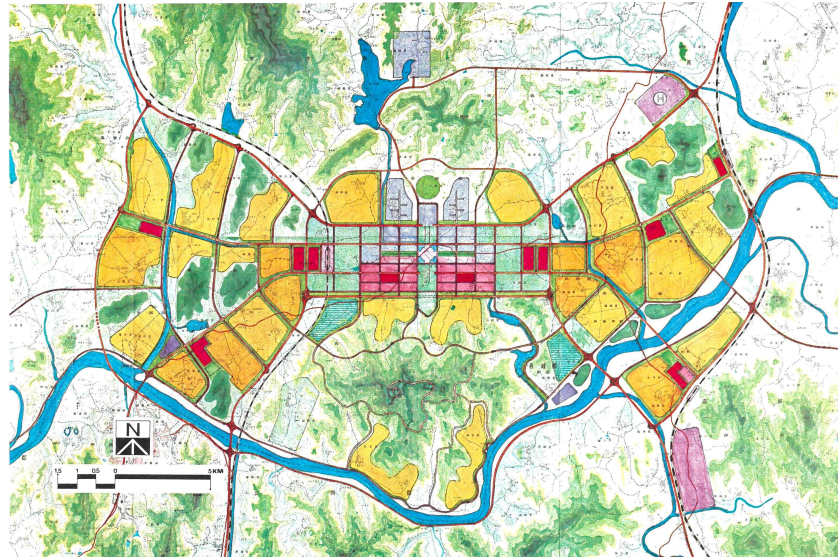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평야부나 평탄지 또는 대하천 주변부에는 이미 도시가 발달되어 있고, 전국토의 70%가 산지임을 고려할 때 행정수도는 생산성이 낮은 산간 및 구릉지 개발형 도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부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약간의 지형개조만 한다면 도시입지조건을 비교적 만족시킬 수 있는 ‘장기지구’를 후보지로 가상(假想)하여 계획(새 도시의 기본구조 [일개])를 수립한다.”

(3) 행정수도의 도시종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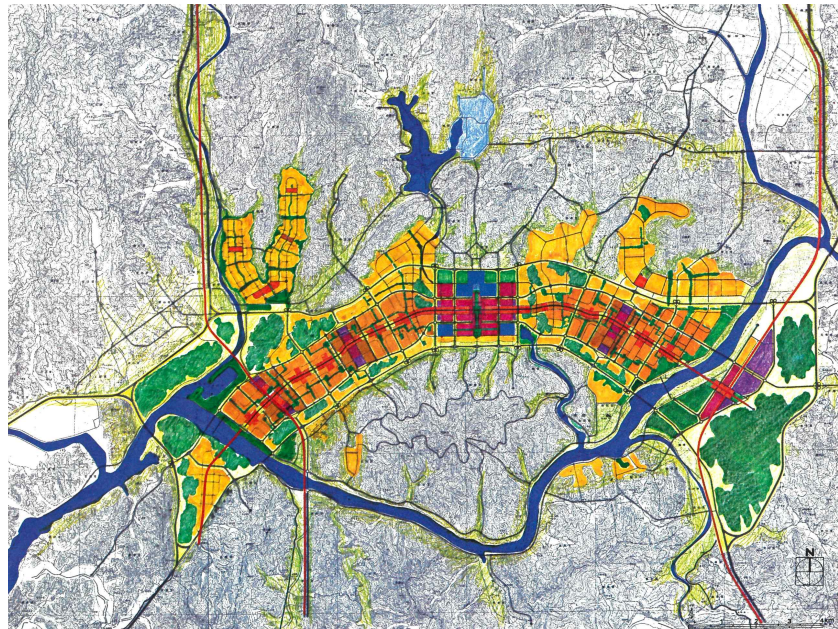
행정수도의 도시기본구조는 위에서 살펴 본 가상후보지(가상입지) 장기지구에 행정수도 ‘도시 전체 개념도’에 기반한 ‘토지이용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도시기본구조는 우선 ‘원안(原案)’이 작성되었고, 이어서 원안을 수정보완한 ‘별안(別案)’이 작성되었다. 이러한 도시기본구조는 ‘도시종합계획도’ 형태로 최종적으로 작성되었다.

도시기본구조에서 ‘별안’의 ‘도시종합계획도’는 행정수도의 인구가 최대 100만에 도달할 때 중심도시에 50만, 외곽전원도시에 50만을 수용하도록 계획한 ‘원안’과 달리 최대 인구 80~100만을 하나의 도시에 전부 수용하도록 계획하면서(기획단, 1979, 179) 그에 맞춰 수정한 것이고, 동시에 ‘원안’은 대형(帶型, 대상형 [帶狀型], linear pattern)과 다핵형(多核型, multi-nuclei pattern)을 혼용하여 작성된 것이고, ‘별안’은 대형의 장점을 적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백지계획 최종 보고서(기획단, 1979)에서는 도시기본구조의 '도시종합계획도'로서 원안과 별안 중 어느 것이 더 최적이라는 최종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는 입지선정에서 최적후보지 1곳을 선전하지 않은 것과 유사한 양상이다.



원안(原案, 전안 [前案])



별안(別案, 수정안)

<그림 7> 행정수도 도시기본구조 '원안'과 '별안'의 도시종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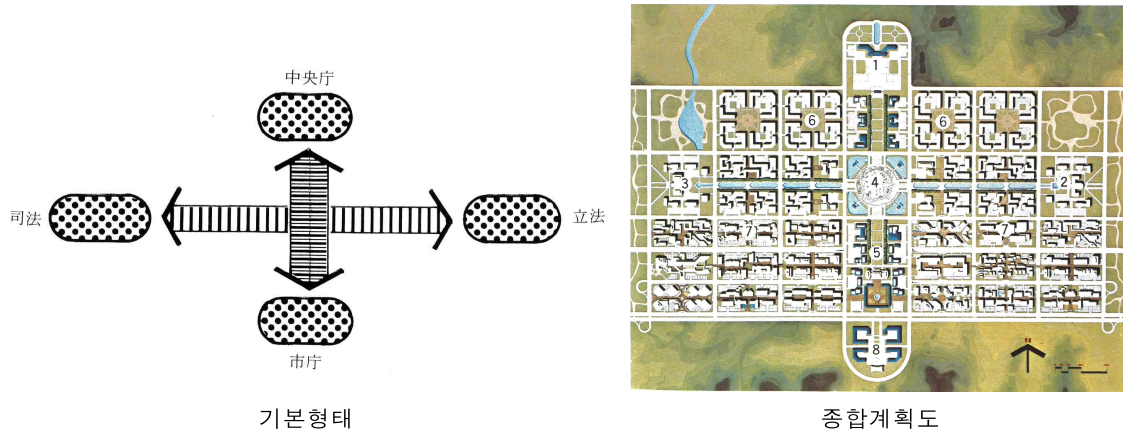
출처: (상)기획단, 1979, 83. (하)기획단, 1979, 222.

주: 도시기본구조의 최종적 형태인 도시계획종합도는 '백지계획'의 최고의 핵심기제이다.

(4) 행정수도의 중심지구

행정수도의 도시구조를 드러낸 도시종합계획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중심지구'이다. 중심지구의 '기본형태'는 상하주축(上下主軸)과 좌우부축(左右副軸)이 직교하는 구조

이며, 상하주축과 좌우부축의 교차에 의해서 '중심지구의 균형'을 확보하고 있다. 중심지구의 '기본계획도'에서 핵심은 '민족의 광장'인데, '민족의 광장'은 상하주축과 좌우부축의 교차점에 위치해있다(기획단, 1979, 85-87).



<그림 8> 행정수도 중심지구의 기본형태 및 종합계획도

출처: (좌)기획단, 1979, 85. (우)기획단, 1979, 87.

주: (우)종합계획도에서 1-8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중앙청, 2.입법부, 3.사법부, 4.민족의 광장, 5.시청, 6.행정지구, 7.업무지구, 8.기념지구

5. 요약, 합의 및 제언

1) 요약 및 합의

1976~1980년 기간에 당시 대통령 박정희가 수도권의 과밀인구 및 안보불안 해결을 위해 추진했던 '행정수도 건설 추진'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피살로 사실상 종료되었지만, 행정수도 건설 추진은 백지계획 형태로 45권 정도의 연구보고서를 간행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최종적 총괄 보고서로 간행된 「행정수도 건설 추진을 위한 백지계획」(기획단, 1979) 보고서에는 행정수도의 입지선정 및 도시기본구조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현재 기준으로도 양적 및 질적으로 상당히 탁월하다.

백지계획에서는 행정수도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논산지구와 장기지구를 모두 후보지로 선정하고, 차후 정책적 결정을 중심으로 최적 후보지(가상 입지) 1개 지구를 선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백지계획에서는 도시기본구조와 관련하여 최적 후보지 1곳이 선정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장기지구를 가상 후보지(가상입지)로 간주하고, 도시기본구조를 원안과 별안으로 이원적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원안의 도시기본구조는 대형과 다핵형을 혼용한 것이고, 별안의 도시기본구조는 대형의 장점을 적용한 것이다. 도시기본구조의 경우도 입지선정의 경우와 유사하게 최종 도시기본구조 1건이 정해지지 않고, 특이하게 원안과 별안을 모두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수도의 입지선정 결과 2개 지구를 제시하고, 도시기본구조도 가상후보지(가상입지)에 작성하면서 원안과 별안 모두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최적 후보지 1곳을 선정해서 그 후보지의 지세 등에 기반해서 도시기본구조를 제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와 지가 급등으로 인한 토지보상비 급증, 이주(移住) 대상 원주민의 반발, 서울시민의 동요(動搖) 등의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제언

‘행정수도 건설 추진’은 결국 중단되었지만, 백지계획에 관한 40여권의 방대한 보고서들을 간행한 바 있고, 이후 여러 신도시 건설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 등에 선행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최적후보지(최적입지)는 백지계획의 가상후보지(가상입지)인 장기지구와 그 공간적 범위가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백지계획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백지계획 관련 보고서들, 특히 「행정수도 건설 추진을 위한 백지계획」(기획단, 1979) 보고서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높은 수준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1970년대 후반 한국의 도시계획, 건축학, 지리학 등 관련 분야의 일부 후진적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로 간주된다. 본 발표자는 1979년에 박정희가 피살되지 않았다면, 당시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지계획은 1980년대 초반부터 실행에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백지계획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주요 관련 분야인 지리학, 도시계획, 건축학 등 모두에서 중요한데, 그 연구 성과는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차후, 특히 지리학에서 백지계획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사사)

본 발표문 작성을 위해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준 이기석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와 보존도서를 제공해 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기석 명예교수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자료 제공이 없었다면, 본 발표는 불가능했다.

(참고문헌)

- 강병기 · 김원 · 이종익, 1979, 도시론: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기획단, 1979,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김병린 외 편, 2005, 임시행정수도: 백지계획은 살아있다, 서울: 해토.
김영하, 2010, 21세기의 비전 천도론,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김인, 1979, “신행정수도의 이전과 입지문제,” 지리학, 20, 54-62.
김형국 · 최상철 공편, 2004, 천도반대운동의 사회학, 서울: 나남출판.
손정목, 2003,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4, 서울: 한울.
엄운진 · 정인하, 2021, “1970년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7(2), 131-142.
연기군지편찬위원회, 2008, 연기군지: 추록.
한기범 편, 2004, 행정수도, 서울: 하늘출판사.
최상철 편, 2004, 지금 왜 수도이전인가!, 서울: 화산문화.
최원희, 2007,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정신문화연구, 30(3), 한국학중앙연구원, 35-61.

일반 분과 3

지리교육

교수세미나실(2동 109호)

16:30~17:10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의 유럽지리 서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민환 · 류나영*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지리교육과정, 세계지리 지역지리, 유럽지리, 산업구조변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지리」 교과서는 유럽지리 관련 내용을 앞부분의 계통지리 단원에 분산시켜 서술한 뒤, 뒷부분의 지역지리 단원 'VI.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에서 집중적으로 해당 내용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의 유럽지리 서술에는 학생들의 오개념을 유도하고 학생들에게 왜곡된 지리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현행 「세계지리」 교과서의 유럽지리 서술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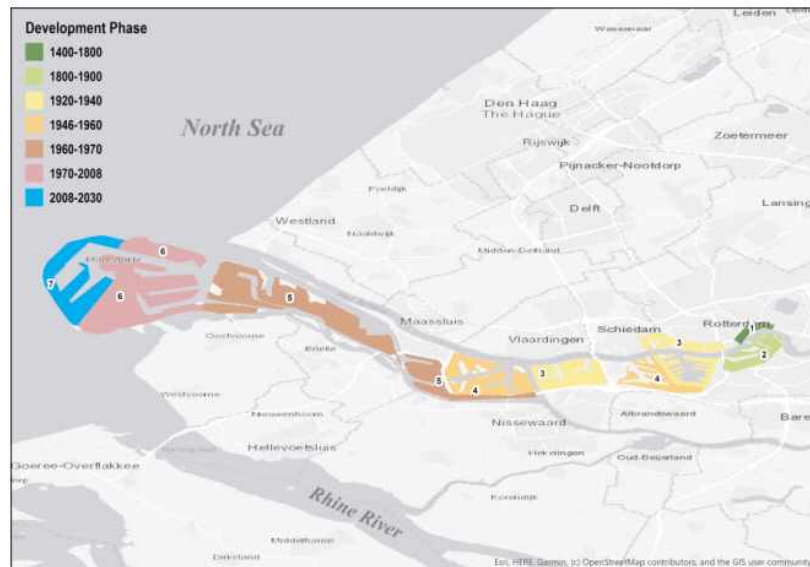
1) 산업 구조 변화 과정의 서술 논리 취약

현행 「세계지리」 교과서는 유럽 산업 구조의 발전 단계를 전통 자원 공업 지역 중심 ⇨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 중심 ⇨ 첨단 클러스터 지역 중심으로 '이동'하는 3단계 구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학생들이 유럽의 전통 공업이 말 그대로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오개념(misconception)을 가지게 한다. 유럽 전통 공업이 쇠퇴하여 산업 중심지가 그 자리에서 힘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전통 공업 쇠퇴에 대한 대응으로 그 자리가 기존 내륙에서 수운 교통이 유리한 해안 지역으로 옮겨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림 1> <세계지리> 현행 교과서에 제시된 서부 유럽 공업 지역의 이동 (박철웅 등, 2019)

현행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대표적인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 3곳(로테르담, 뉘케르크, 미들즈브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학생들의 이해가 오개념임을 알 수 있다. 로테르담 항구는 1872년 니우웨 운하 건설 때부터 운하 양안에 대륙 내부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활용한 공단이 발달해 있던 것이, 루르의 성장으로 그 규모가 확장되었던 것에서 발달하였다. 처음에는 대륙 내부에서 오는 하운 운송을 활용한 산업이 발달하였으므로 이를 활용하기 유리하도록 하구에서 먼 운하 안쪽에 항구와 공단이 입지해 있다가, 1960년대 유로포트 건설과 함께 대륙 내부에서 오는 자원보다 대륙 외부에서 오는 자원의 가공에 집중하게 되면서 점점 강과 운하의 하구 쪽으로 항구와 공단이 옮겨가게 된 것이다(그림 2). 기존에 유럽의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은 대륙 내부의 자르/루르/로렌과 같은 지역에서 운송되는 자원을 가공하여 외부로 수출하는 구조였는데, 1960년대부터 대륙 내부의 자원 고갈과 세계 자원 거래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이 지역이 외부에서 수입한 자원을 가공하여 대륙 내부로 운송하는 산업 구조로 변화한 것으로, 그 기능 자체가 아니라 그 기능의 방향이 변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림 2> 로테르담 항구의 발달 과정

(출처: <https://porteconomicmanagement.org/pemp/contents/part2/chainging-geography-of-seaports/evolution-port-rotterdam/>)

뉘케르크와 미들즈브러의 경우에도, 19세기 말 이미 항구와 조선소가 건설되어 중공업이 번성하고 있었다. 20세기 초에 뉘케르크 항구에 대규모 공장 건설 붐이 일면서 양모 가공업과 모피주, 발랑시엔 등 대륙 내부의 프랑스 북부 지역 석탄 산지에서 오는 석탄을 가공하는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1960년에 뉘케르크-에스코트 운하가 건설되고, 자르가 쇠퇴한 이후 뉘케르크는 수입 철광석을 활용한 철강 산업 중심지로 성장했다. 한편,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된 이후 재건된 로테르담, 뉘케르크와 달리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은 영국의 미들즈브러 항구는 전쟁 특수로 번성하였고, 1965~1968년 북해 유전이 개발됨에 따라 대규모 석유 회사의 공정 시설이 입지하면서 성장하였다.

따라서, 산업지리 서술에서 전통 공업 지역 → 입해 지역 → 첨단 산업 지역으로 유럽의 산업이 입지를 이동하며 순차적으로 발달했다고 하는 3단계 구성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지리적 이동의 개념으로 이 변화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산업 환경의 변동으로 공업 지역 간의 공간 관계가 변화한 것으로 설명해야 한다. 전통 자원 공업과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은 산업 지역으로 같이 성장한 경향이 강하며,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은 그곳이 갑자기 교통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되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1960년대 석탄가 자유화 이후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적환지로서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을 거치는 산업 운송의 방향이 변화되면서 빠르게 성장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오개념에 혼동하지 않도록 유럽 산업지리 서술 논리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공간 현상의 원인이 아닌 공간 요소의 암기 유도

현행 「세계지리」 교과서의 유럽지리 서술의 또다른 문제점은, 공간 현상의 원인을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요소를 일방적으로 암기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지리학은 공간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암기”하는 학문이 아니라, 어느 공간 현상이, 즉 공간 요소가 어디에 “왜” 있는지를 “질문”하고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유럽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나 분리주의 운동 서술처럼 위치만을 암기하게 하는 것은 지리가 그 스스로를 지루한 과목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지리학적으로도, 교육학적으로도 의미 부여가 어려운 주입식 교육일 뿐이다.

현행 교과서에서는 유럽의 첨단 클러스터 공업 지역에 대해 설명할 때 예시로 제시되는 케임브리지 사이언스파크, 소피아 앙티폴리스,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 오울루 테크노폴리스, 제3이탈리아가 왜 그곳에 위치하고 있고, 왜 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저 첨단 클러스터의 이름과 위치만 서로 맞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과서 상에서 탐구활동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설명이 일부 제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에는 설명이 다소 추상적인 면이 있다.

분리주의 운동에서는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지역을 크게 6가지로 정리하여 소개하며 그 중 2개는 역사, 문화적인 차이, 1개는 경제적 격차, 3개는 경제적 격차와 언어적 차이 모두를 이유로 분리주의 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분리주의 운동을 이해하는 핵심은, 그 이유가 ‘경제적 격차’나 ‘역사/문화적 차이’에 있다는 것을 암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 격차와 역사/문화적 차이가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다. 이탈리아 북부가 왜 남부보다 평균 소득이 높고, 카탈루냐와 바스크는 왜 에스파냐 타 지역보다 돈을 많이 벌고,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영국과 어떤 역사적, 문화적 차이를 갖고 있길래 분리 독립까지 원하는 것인가? 이 질문들은 교과서에서 또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대부분에게 그저 의문점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과 왈로니아 지역의 언어 차이를 학생들이 외우도록 하면서도, 그 언어 분포가 각 지역이 인접한 국가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그리고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분리 독립 운동을 하는 것처럼 묘사된 서술도 논리적으로 비약이 크다. 언어가 다르다고 분리 독립 운동이 발생한다면, 스위스는 공용어가 4개나 있는데 왜 이리 평화로운가? 분명 언어 차이가 발생하는 지역은 그 역사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가 우선되어 있고, 언어 차이는 부차적인 문화적 차이의 하나로 이해되어야 함에도, 「세계

지리」 교과서에서는 마치 언어적 차이가 분리 독립의 이유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색하다.

따라서, 첨단 클러스터 산업 지역과 유럽 분리주의 운동에 대한 서술을 강화하여 지리적 요소의 압기보다는 그 현상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유럽지리를 공부하면서 가지게 되는 의문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는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한 해답을 교육과정 상에서 직접 제시하지 않더라도, 탐구활동이나 수행평가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관련 내용을 배우며 가지게 될 호기심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3) 서유럽 중심의 지나친 일반화와 동유럽의 배제

현행 「세계지리」 교과서는 유럽의 도시 구조와 북아메리카의 도시 구조를 설명하면서, 유럽의 도시 구조를 극히 일부 서유럽 도시의 구조로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있다. 유럽의 도시 구조를 설명하면서, 도시의 오래된 역사에 따라 도로망이 복잡하고, 도심에 전통적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어 그곳에 주로 고소득층이 거주하고, 최근에는 외곽 지역에 신시가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내용 위주로 유럽의 도시를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유럽의 도시들 중에서도 런던과 파리 두 도시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실제로는 상당수의 유럽 도시들은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도심이 파괴되었고, 오늘날 신식 건물들로 대체된 경우가 많다. 런던과 파리는 세계대전의 총탄을 피하게 되면서 도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세계대전에 직접적으로 밟힌 도시들은 오늘날 「세계지리」 교과서에 서술되는 전통적인 유럽의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극히 일부의 사례, 런던과 파리의 사례만을 중심으로 유럽의 도시 구조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유럽지리 서술 전반에 걸친 문제로, 전체적으로 현행 세계지리 교육과정에서는 유럽지리를 서유럽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고 동유럽과 러시아는 교육과정의 대부분 내용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다. 동유럽은 최근 다뉴브 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 발전과 유럽 연합 가입, 민주화 등으로 새로이 개발 도상국으로서 부상하고 있어 서유럽 지역과 그 특성이 충분히 비교되어 소개될 수 있는 지역임에도, 교육과정 상에서 그 서술이 빈약하다. 이것은 세계 곳곳에 대한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는 선봉장으로서 지리 교과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약화시키고, 학생들의 세계관을 편협하게 할 수 있는 요소여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동유럽을 포함하여 유럽 전체를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유럽지리 내용 서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서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럽의 도시 구조의 사례로 다른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추가하거나, 유럽의 전통적인 도시 구조의 일반화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 또는 교육과정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수정해 유럽과 앵글로아메리카의 일반화된 도시 구조를 비교하는 내용을 개선하여 유럽의 더욱 다양한 도시를 포섭할 수 있는 일반화된 도시 구조 모형을 추가하거나, 아예 일반화된 도시 구조의 학습을 삭제하고 도시 각각의 개별적인 구조를 사례를 통해 학습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서유럽 중심에 치우쳐 있는 교육과정 내용을 개선하여 동유럽의 산업, 도시, 갈등도 복합적으로 다루어 학생들이 유럽을 서유럽에 국한시켜 이해하지 않고 유럽이라는 대륙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동유럽과 서유럽의 산업 발전 시기 차이에 따른 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학생들에게서 더욱 의미 있는 지리적 통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8,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 박철웅·조성호·강은희·이강준·홍철희·박병철·김지현·백승진·최재희, 2019, 「고등학교 세계 지리」, 서울:(주)미래엔.
- 손명철, 2020, "고등학교 한국지리 과목 지역지리 단원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15 개정 교육과정과 3종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3), 15-26.
- 신정엽·이정식·이경희·양희경·김봉수·유상철·박재현·박천영·박철진, 2019, 「고등학교 세계 지리」, 서울:천재교육.
- 최병천·유성종·강성열·김덕일·우연섭·이우평·김시구·이훈정·엄주환·남길수·김차곤·이화영·이두현·강문철·윤정현·김진형·방완석, 2019, 「고등학교 세계지리」, 서울: (주)비상교육.
- 황병삼·천종호·이준구·이해창·천재호·강재호, 2019, 「고등학교 세계지리」, 서울: (주)금성출판사.
- Allen, R.C., 2023, The Transportation Revolution and the English Coal Industry, 1695 - 1842: A Geographical Approach,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83(4), 1175-1220.
- Haralambides, H. E. , 1997, Ports and regional development in Europe: a historical perspective. Report submitted to the European Commission in the context of its preparation of the Green Paper on Ports and Maritime Infrastructure.
- Oei, P.-Y., Brauers, H., and Herpich, P., 2020, Lessons from Germany's hard coal mining phase-out: Policies and transition from 1950 to 2018, Climate Policy, 20(8), 963-979.
- Stratton, M., Tinder, B., 2000, Twentieth Century Industrial Archaeology, Taylor & Francis: London.
- Van de Laar, Paul, 2021, Rotterdam: A Historical Perspective for the Future, PORTUS/Port City Relationship and Urban Waterfront Redevelopment, n.42.
<https://porteconomicsmanagement.org/pemp/contents/part2/changing-geography-of-seaports/evolution-port-rotterdam/>
<http://www.dunkerque-port.fr/en/dunkirk-port/history-dunkirk-port-origins.html>

2022 개정 초등사회과 지리영역 교육과정의 언어 네트워크 구조 분석

이동민*

(*진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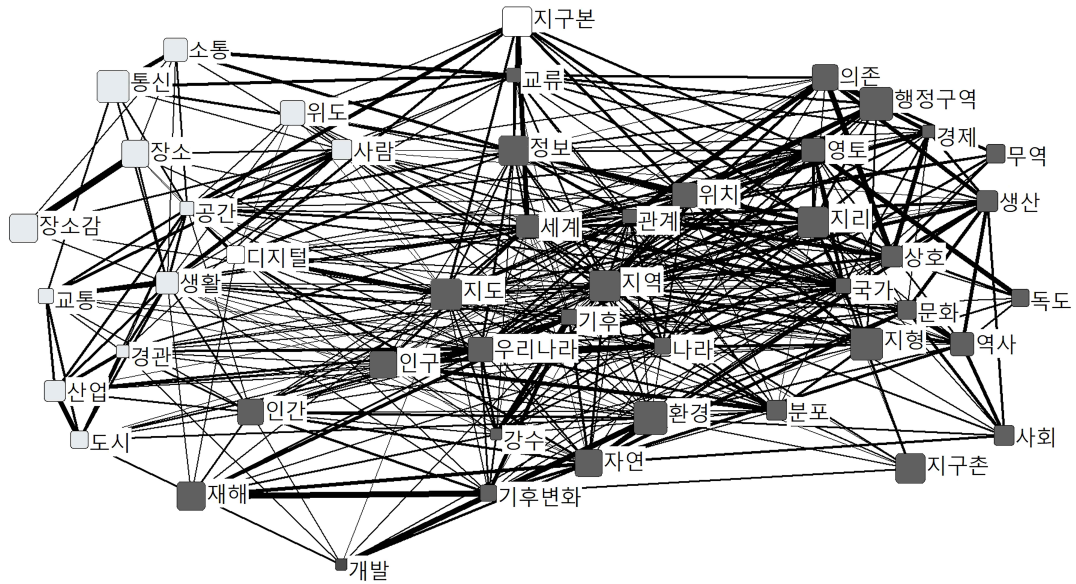
주요어 :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사회과, 초등지리교육, 성취기준, 의미연결망 분석

본 연구는 2022 개정 초등사회과 지리영역 교육과정이 형성하는 의미연결 구조, 즉 교육과정 텍스트의 의미연결망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분석 결과 2022 개정 초등사회과 지리영역 교육과정이 형성하는 의미연결망은 지역지리 및 지도 관련 내용을 최중심 핵심개념으로 지리 교과와 주요 개념들이 상호연결되는 패턴을 보였다. 기후위기와 방재 및 재난·안전교육, 장소와 장소감, 지리공간기술 등 지리교육 분야의 시의성 있는 주제 또한 중요한 위치를 점했다. 한편으로 기후변화 및 장소·장소감 관련 핵심개념은 의미연결망 내부에서의 상대적으로 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표 1-2, 그림 1 참조).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2022 개정 초등사회과 지리영역 교육과정 텍스트의 의미연결망 구조는, 교육과정 텍스트가 기후위기, 사적지리 및 지리교육과 관련한 정의적 영역, 안전교육과 재난·방재교육, 지도학습과 지리공간기술, 세계시민교육 등 지리교육이 추구해야 할 교육적·학문적·시대적 과제와 요구사항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 한편으로 특히 사적지리, 세계시민교육 등의 내용이 자칫 텍스트의 의미연결망 구조 속에서 주변적인 위치를 점하며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소지 또한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과서 집필, 교실수업 등 교육과정의 실제 운영에 있어 본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최소화되고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가 최대한 학교현장에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장소감 등 사적지리 관련 내용을 지리적 문제해결이나 삶의 지리적 환경 개선 등과 효과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교과서 집필이나 수업의 방향, 방안 등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접근이나 연구가 의미있게 시도된다면, 2022 개정 초등사회과 지리영역 교육과정 시대의 초등사회과교육, 초등지리교육은 더한층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1> 2022 개정 초등사회과 지리영역 교육과정의 주요 핵심개념 및 출현 빈도

순위	핵심개념	빈도	순위	핵심개념	빈도	순위	핵심개념	빈도	순위	핵심개념	빈도
1	지역	87	12	지리	14	24	지형	9	36	디지털	6
2	지도	37	12	장소	14	26	교류	8	36	소통	6
3	생활	35	12	분포	14	26	기후변화	8	36	통신	6
4	세계	34	16	도시	13	26	무역	8	40	강수	5
5	인구	32	16	역사	13	26	위도	8	40	개발	5
6	기후	28	18	교통	12	26	의존	8	40	경제	5
7	환경	23	18	자연	12	31	경관	7	40	사회	5
8	위치	18	18	사람	12	31	문화	7	40	산업	5
9	관계	17	21	생산	11	31	영토	7	40	장소감	5
9	정보	17	22	국가	10	31	인간	7	40	재해	5
11	우리나라	15	22	상호	10	31	지구촌	7	40	지구본	5
12	공간	14	24	나라	9	36	독도	6	40	행정구역	5



<그림 1> 2022 개정 초등사회과 지리영역 교육과정의 언어 네트워크 구조

<표 2> 2022 개정 초등사회과 지리영역 교육과정의 주요 핵심개념의 연결중심성

순위	핵심개념	연결중심성	순위	핵심개념	연결중심성	순위	핵심개념	연결중심성
1	지 역	7.065	17	의 존	4.382	33	산 업	3.073
2	우리나라	6.516	18	기 후	4.349	34	분 포	3.011
3	관 계	6.297	19	환 경	3.972	35	재 해	2.964
4	세 계	5.922	20	문 화	3.924	36	도 시	2.862
5	지 리	5.848	21	역 사	3.773	37	행정구역	2.692
6	나 라	5.650	22	교 류	3.761	38	교 통	2.685
7	위 치	5.617	23	경 제	3.720	39	사 회	2.177
8	정 보	5.414	24	강 수	3.671	40	소 통	2.028
9	자 연	5.296	25	지구본	3.599	41	통 신	2.010
10	생 활	5.025	26	인 간	3.429	42	개 발	1.848
11	공 간	4.866	27	기후변화	3.306	43	독 도	1.690
12	국 가	4.726	28	경 관	3.304	44	장 소	1.658
13	지 도	4.563	29	인 구	3.143	45	무 역	1.641
14	상 호	4.543	30	사 람	3.127	46	장소감	1.455
15	생 산	4.499	31	디지털	3.101	47	위 도	1.428
16	영 토	4.391	32	지 형	3.079	48	지구촌	1.027

(참고문헌)

강이화·김혜진(2015), 언어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통한 혁신학교 교육과정 문서 분석, 교육학연구, 53(2), 185-211.

강창숙(2021), 지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탐구, 충북대학교 출판부.

교육부(202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권은주·최아수·최재영(2023),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조망과 지리 교과의 역할 고찰, 학습자 중심교육연구, 23(16), 567-580.

권정화(2010), 지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구도 설정, 대한지리학회지, 45(6), 711-720.

기근도(2022), 지리교육적 주제로서의 자연재해,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0(1), 105-122.

김광순·송언근(2008), 공간인식력 육성을 위한 교과서 그림지도 내용의 재구성: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2), 111-128.

김다원(2020), 초등 사회과 지리영역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세계지리 내용의 변화 고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3), 1-14.

김민성·윤옥경(2013), 장소감 측정도구의 개발과 적용: 초등학생의 성별 차이를 사례로, 21(2), 17-28.

김영식(2018), 문법 영역 성취기준 해설 등이 교과서 내용 구성에 미치는 영향: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국어교육연구, 67, 33-62.

김정완(2019),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른 3학년 장소감 학습: 심상도 그리기 활동을 중심으로, 학교와 수업 연구, 4(1), 35-62.

- 김형숙·이종원(2021), 커뮤니티 매핑의 초·중등교육 활용 사례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56(5), 551-564.
- 나경훈·이동원(2023),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에서 본 2022 개정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과 논쟁점, 사회과교육연구, 30(2), 19-38.
- 박선미(2018), 한국 지리교육과정의 쟁점과 전망, 문음사.
- 박한우·Leydesdorff, L.(2004),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5), 1377-1387.
- 윤옥경·유수진(2023),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지리 영역 개발과 주요 특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1(1), 15-27.
- 윤주석·유지은(2022),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체육교사의 목소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7(2), 51-65.
- 이간용(2016), 2015 개정 초등사회과 지리 영역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반성적 고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1), 15-32.
- 이동민(2014), 초등지리 교육과정에 반영된 세계시민교육 관련 요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09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9(6), 949-969.
- 이동민(2016),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의미구조 분석, 한국지리학회지, 5(1), 1-12.
- 이동민(2018),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한나라 기행(韓の國紀行)」에 재현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7(3), 363-386.
- 이상희·김태성·김희주(202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직업에 관한 연구 : 학술연구 동향 및 의미연결망 분석, HRD연구, 26(1), 193-221.
- 이선경·김남수·주형선·곽영순·박윤경·박형빈·서우석·염은열·전푸름(2020), 2015 개정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 내용분석과 시사점: 사회, 과학, 도덕, 실과 및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33(4), 443-462.
- 이소연·성경희·이정우(2017), 2009와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내용요소 비교 분석, 시민교육연구, 49(3), 79-103.
- 이지나·정희선(2018), I. B. Bishop의 19세기 말 조선 여행기 속 재현양상 분석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1), 1-17.
- 이진희·조인정(2016), 지리공간기술의 지리교육현장 적용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태도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5(2), 84-97.
- 이환철·김선희·고호경(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의 기하 성취기준에 대한 논의, 수학교육학연구, 22(4), 603-617.
- 임은진(2023), 2022 개정 지리 교육과정 개발 방향 및 주요 내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1(1), 1-13.
- 전보애·홍일영(2020), 드론을 활용한 커뮤니티 매핑이 시민성과 사회참여역량에 미치는 효과: 동해 논골담길 창의적 체험활동을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2), 89-107.
- 정덕호·이준기·김선은·박경진(2013),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한 교육과정 목표와 교과서 학습 목표와의 일치성 분석: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지구과학 I을 중심으로, 한국

지구과학회지, 34(7), 711-726.

- Andronache, D., Bocoş, M., & Neculau, B. C.(2015), A systemic-interactionist model to design a competency-based curriculum,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80(5), 715-721.
- Brunellière, A., Perre, L., Tran, T., & Bonnotte, I.(2017), Co-occurrence frequency evaluated with large language corpora boosts semantic priming effects,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0(9), 1922-1934.
- Catling, S.(1978), The child's spatial conception and geographic education, *Journal of Geography*, 77(1), 24-28.
- Catling, S.(2004), An understanding of geography: The perspectives of English primary trainee teachers, *GeoJournal*, 60, 14-158.
- Catling, S.(2005), Children's personal geographies and the English primary school geography curriculum, *Children's Geographies*, 3(3), 325-344.
- Catling, S. & Willy, T.(2018), *Understanding and Teaching Primary Geography*(2nd Edition), London: Sage.
- Cho, C.-K., Kim, H.-S., & Lee, S.(2023), Analysis of the issues that emerged in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South Korea: Text min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the comments at the public hearing on YouTube, *Journal of Education and e-Learning Research*, 10(3), 463-473.
- Doerfel, M. L.(1998), What constitutes semantic network analysis? A comparison of research and methodologies, *Connections*, 21(2), 16-26.
- Hanus, M. & Havelková, L.(2019), Teachers' concepts of map-skill development, *Journal of Geography*, 118(3), 101-116.
- Harris, A. & de Bruin, L. R.(2018), Secondary school creativity, teacher practice and STEAM education: An international study, *Journal of Educational Change*, 19, 153-179.
- Haubrich, H., Reinfried, S., & Schleicher, Y.(2007), Lucerne Declaration on geographical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eographiedidaktische Forschungen*, 42, 243–250.
- Heffron, S. G. & Downs, R. M.(2012), *Geography for Life: National Geography Standards*(Second Edition), Washington, DC: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 Huisman, M. & van Duijn, M. A. J.(2011), A reader's guide to SNA software, In J. Scott & P. J. Carrington(Eds.), *The Sage Handbook of Social Network Analysis*, London: Sage, 578-600.
- Lee, J. & Butt, G.(2014), The reform of national geography standards in South Korea - Trends, challenges and responses, *International Research in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23(1), 13-24.
- Liu, W., Lai, C. H., & Xu, W. W.(2018), Tweeting about emergency: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social media messaging during Hurricane Harvey, *Public Relations Review*, 44(5), 807-819.

- Knecht, P., Spurná, M., & Svobodová, H.(2020), Czech secondary pre-service teachers' conceptions of geography,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44(3), 458-473.
- Osborne, Z. M., van de Gevel, S. L., Eck, M. A., & Sugg, M.(2020), An assessment of geospatial technology integration in K - 12 education, *Journal of Geography*, 119(1), 12-21.
- Telford, A.(2020), A climate terrorism assemblage? Exploring 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terrorism-radicalisation relations, *Political Geography*, 79, 102150.
- Unger, L., Vales, C., & Fisher, A. V.(2020), The role of co-occurrence statistics in developing semantic knowledge, *Cognitive Science*, 44(9), e12894.
- Walker, S. L.(2007), Early instruction in geography: An exploration in the ecology of kindergarten and first-grade geography education, *Journal of Geography*, 106(3), 123-131.

학술 답사

청주의 원도심을 만나다: 성안동-중앙동 일대

청주 원도심 일대

09:00~11:00

청주, 원도심을 만나다

일시: 2024. 5. 25. 오전 9시~11시

답사지역: 청주 원도심 일대(상당구 성안동·중앙동 일대)

집결장소: 청주 중앙공원(공원 내 망선루 앞)

이번 학술대회에 답사지로 소개할 지역은 청주의 원도심인 성안동과 중앙동 일대입니다. 청주 원도심은 조선시대 청주읍성이 있었던 지역으로 일제강점기에 충북도청이 이전하면서 현재까지 충북 전체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은 도청을 비롯한 주요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청주의 외연적 확장에 따라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삼국시대의 우물터부터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흔적들을 통해 청주의 역사성을 느낄 수 있으며 2010년 이후 도시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답사에서는 청주 원도심에 있는 개교한지 100년 이상된 초등학교, 중앙동을 통과하던 과거 충북선의 모습, 일제강점기에 건축되어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문화주택, 인구감소로 이전한 초등학교 부지, 폐업한 백화점 건물 등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리학 전공자들과 도시답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인구 100만 명 이하 내륙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인 청주를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이해하고 도시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답사코스

청주 중앙공원-성안길 우물터-(구)롯데백화점 영플라자-청주시청 별관-문화동 적산가옥-주성초등학교-학천탕-옛 청주역전시관